

서귀포시 문화예술 환경 분석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

- 책 임 연 구 : 강권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공 동 연 구 : 이민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김화자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본부장)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 구 지 원 : 김세진 (제주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팀장)
 정재열 (제주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팀 차장)

I. 연구개요

- 문화예술 향유 여건의 저하는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간 고질적인 인구 불균형 및 문화여가 서비스 격차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은 문화예술 향유에 있어서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임
- 이를 위해 행정은 다양한 예산의 투입을 통해 서귀포시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시도 하였으나, 시스템의 구축이 아닌 일시적인 행정예산의 반복적 투입은 사업의 종료와 함께 사업의 연속성을 잃어버리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
- 반면 최근 영어교육도시 조성,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 서귀포시 지역으로 외부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시설 및 플랫폼의 부족, 제한되고 단순화된 형태의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해 충분한 문화예술 서비스 향유가 어려운 실정임
- 즉, 현재 서귀포시는 불균등한 문화여가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귀포시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서귀포시 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함

II. 서귀포시 지역현황 분석

- 서귀포시의 면적은 제주 전체의 47.1%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27.2%에 불과하며, 읍면지역은 접근성이 낮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전반적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읍면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 농업 및 관광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고, 지역 외 근로자 비중이 제주시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임
- 제주시에 비해 총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중이 높은 편이며, 따라서 인구 1인당 문화예술 예산액은 제주시의 2.3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제주시에 비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지와 축제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문화관광 자원 또한 동 지역과 읍면지역 간 어느정도 균형잡힌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제주도내 예술인의 28.9%가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읍면지역과 동 지역 간 분포는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가 훨씬 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남

Ⅲ. 서귀포시 주민의 문화예술 만족도 및 수요 분석

1. 문화예술 환경 및 서비스 만족도 분석

- 2023년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문화환경 만족도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은 2016년 24.5%에서 2023년 20.3%로 감소하였고, '불만족' 응답 비율은 16.6%에서 24.5%로 증가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서비스의 물리적 인프라 부족, 콘텐츠 다양성 미비, 프로그램 단순화 등이 주민 만족도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령대, 지역, 이주 여부에 따라 만족도 편차가 확인되고 있는데, 읍면지역 및 고연령층일수록 문화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 특히 동 지역과의 인프라 격차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환경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3점) 수준이거나 그 이하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주민일수록 만족도 수준은 더욱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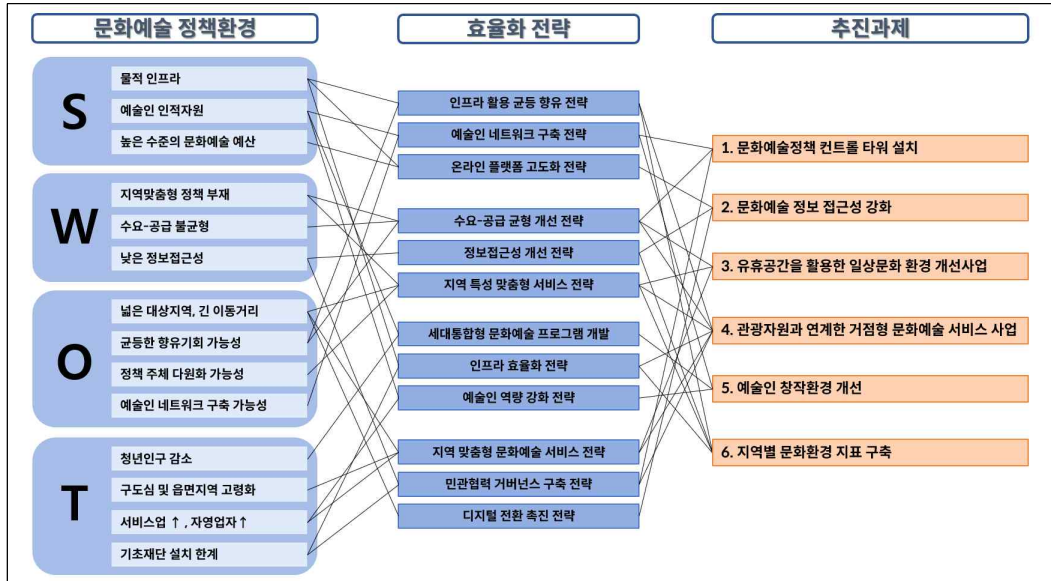
2.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수요 분석

- 예술가, 문화매개자, 향유자 대상 면접조사 결과, 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 ②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③ 정책 대상의 명확화, ④ 컨트롤 타워 역할의 전담조직, ⑤ 예술인과 주민 간 소통 강화 등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모든 집단의 조사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서귀포시 내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 설계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제주시 지역의 경우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는 이와 같은 거점 시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바, 이로 부터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조성, 컨트롤 타워 설치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현재 서귀포시 문화예술 환경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문화예술 정책 등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술과 주민 간 소통 강화, 정책 대상의 명확화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IV.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환경 SWOT 분석

- 앞서 실시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환경 SWO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① 문화예술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② 서귀포 문화예술포털 고도화, ③ 거점형 문화예술서비스 사업, ④ 서귀포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⑤ 문화예술 인프라 효율화 및 활성화 사업이라는 총 5개의 추진 과제를 제안함
-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도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내부 외부	강점 (S)	약점 (W)
기회 (O)	SO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균등 향유 전략 : 풍부한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간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전략 : 고르게 분포된 예술인 인적자원을 활용한 공식적 네트워크 구축 •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전략 : 서귀포 문화예술모털을 고도화하여 정보접근성 개선 	WO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공급 균형 개선 전략 : 연령대별, 지역별 문화예술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정보접근성 강화 전략 :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정보접근성 개선 • 지역특성 맞춤형 서비스 전략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거점형 문화예술 서비스 확대
	ST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통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전략 : 다양한 연령 및 성별의 예술인을 활용하여 세대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 인프라 효율화 전략 : 풍부한 물적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행정 한계 극복 • 예술인 역량강화 전략 : 다양한 예술인 자원을 활용한 세대 간 협업 프로그램 개발 	WT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 서비스 전략 : 인구구조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전략 : 행정시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 디지털 전환 촉진 전략 :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정보접근성 개선



V. 서귀포시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

1. 문화예술 정책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시와 비교했을 때 인구 수 대비 많은 문화예술예산을 투입하는 등,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이는 서귀포시의 관광도시로서의 특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로 인한 민간시장 발달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결국은 민간시장을 통해 공급되는 서비스 시설의 부족을 행정예산 투입을 통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정 사업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정책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귀포시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문화예술 정책 수립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가칭) 서귀포 문화예술센터”의 설치를 제안함
- 다만 전반적인 정책 환경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컨트롤 타워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발생할 여지가 높은 바, 본 연구에서는 광역단위에서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제주문화예술재단 내 별도 부서의 형태로 서귀포 문화예술센터 설치를 제안함

2. 문화예술 정보 접근성 강화

- 서귀포시에는 현재 지역주민의 문화접근성 개선을 위해 서귀포 문화예술포털, 제주인놀다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 이렇듯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귀포시 주민들의 다수가 플랫폼의 존재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정보획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현재 문화예술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인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접근성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은, 해당 플랫폼이 정보전달 및 교환의 창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함

- 최근 공공운영 플랫폼의 경우 사업의 규모와 양 측면에서 크게 확대되는 등 인프라의 공급 측면에서는 많은 관심이 집중되나, 본질적인 목적인 활용에 대한 관심은 부재한 상황임
- 즉, 문화예술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전달 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의 활용 가치 극대화를 통한 문화예술 정보접근성 강화 사업을 제안함

3. 유휴공간을 활용한 일상문화 환경개선 사업

- 2000년대 이후 추진된 정부의 농어촌 지역 중심의 지원사업들은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다양한 공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음
- 그러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농어촌 지역의 공간들은 사업기간의 종료,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활용되지 않는 지역 내 유휴공간으로 전락하였음
- 또한 농어촌 중심의 젊은 인구 유출 현상, 저출생 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학교의 폐교가 이루어지면서 유휴공간의 증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 내 유휴 공간의 증가는 곧 공간 이용 비효율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의 효율성 담보를 위해서는 공간 이용의 효율성 확보 방안이 절실한 시점임
- 농어촌 지역 중심의 유휴 공간 증가 현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자원의 활용 가치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지역 공간자원의 효율성 확보 및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문화 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유휴공간을 활용한 일상문화 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제안함

4. 관광자원과 연계한 거점형 문화예술 서비스 사업

- 서귀포시의 경우 동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곳을 거점으로 다양한 축제 및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관광시설들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행사들은 주요 타겟층이 관광객들에게 맞춰지면서, 실제 거주민들의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 관광지는 그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시설이 입지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최근 관광지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된 관광지들은 관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본 연구에서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거점형 문화예술 서비스 사업의 추진을 제안함

5.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 제주도는 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주민등록인구 대비 예술인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서,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다만 신진 예술인 분석 결과, 20~30대 청년 예술인 비중이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등, 청년 예술인들의 신규 발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청년 예술인의 감소 현상의 이면에는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부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결국 지역단위 순수예술 지원 부족은 상대적으로 지원사업 의존도가 높은 청년 예술인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정책 부재는 청년 뿐만 아니라 일반 예술인들 또한 유사하게 경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예술인 대상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예술인들이 순수예술 지원 부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보유한 예술인들의 니즈가 반영된 정책의 추진이 시도될 필요가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서귀포시에 거주하거나 서귀포시 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제안함

6. 서귀포시 지역별 문화환경 지표 구축

- 읍면지역과 동 지역은 인구분포에 있어서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곧 민간 서비스의 격차로 이어짐
- 따라서 행정은 생활 기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간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음
- 하지만 정책의 추진은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며 이해관계자가 많아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책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근거 마련은 정책의 정당성이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음
- 실제로 최근 공공정책 영역에서는 자료 기반의 정책 수립과 추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측정도구(지표)의 개발과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화예술 정책 또한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문화환경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 추진 단위에 부합하는 측정 도구의 마련이 필요함
- 서귀포시 지역단위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서귀포시 내 각지역의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본 연구에서는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의 측면에서 지역별 문화환경 지표 구축을 제안함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2-1. 서귀포시 지역현황 분석	3
2-2. 서귀포시 주민의 문화예술 여건 만족도 및 수요 분석	4
2-3.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4
II. 서귀포시 지역현황 분석	6
1. 일반현황 분석	6
1-1. 지리적 특성	6
1-2. 인구	7
1-3. 산업/노동	16
1-4. 재정	22
2. 문화예술 자원 현황 분석	26
2-1. 제주지역 행사 및 축제 현황	26
2-2. 예술인 현황	28
2-3. 문화공간 자원	32
2-4.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 및 포털 운영 현황	37
III. 서귀포시 주민의 문화예술 만족도 및 수요 분석	42
1. 문화예술 환경 및 서비스 만족도 분석	42
1-1. 자료분석 개요	42
1-2. 자료분석 결과	43

2.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수요 분석	57
2-1. 조사분석 개요	57
2-2. 조사 결과	60
IV.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환경 SWOT 분석	81
1. 내부환경 분석	81
1-1. 강점(strength)요인	81
1-2. 약점(weakness)요인	83
2. 외부환경 분석	87
2-1. 기회(opportunity)요인	87
2-2. 위협(threat)요인	89
3. 종합분석 및 전략 도출	93
V. 서귀포시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	95
1. 문화예술 정책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95
2. 문화예술 정보 접근성 강화	100
3. 유휴공간을 활용한 일상문화 환경개선 사업	102
4. 관광자원과 연계한 거점형 문화예술 서비스 사업	104
5.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106
6. 서귀포시 지역별 문화환경 지표 구축	109
참고문헌	112
[부록]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재단 운영 현황 및 사례 분석	113
ABSTRACT	130

표 목차

〈표 II-1〉 제주지역 인구 현황 (2024년 기준)	7
〈표 II-2〉 제주지역 인구 변화	8
〈표 II-3〉 서귀포시 지역별 인구 변화	9
〈표 II-4〉 제주지역 연령대별 인구 현황 (2024년 기준)	10
〈표 II-5〉 서귀포시 연령대별 인구 변화	11
〈표 II-6〉 서귀포시 지역별 아동·청소년 인구 변화	12
〈표 II-7〉 서귀포시 지역별 청년 인구 변화	13
〈표 II-8〉 서귀포시 지역별 중장년 인구 변화	14
〈표 II-9〉 서귀포시 지역별 노년 인구 변화	15
〈표 II-10〉 서귀포시 사업체 현황 (2022년 기준)	16
〈표 II-11〉 서귀포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 (2022년 기준)	18
〈표 II-12〉 제주지역 연령별 근로자 현황 (2024년 상반기 기준)	19
〈표 II-13〉 주요 산업별 서귀포시 근로자 현황 (2024년 상반기 기준)	20
〈표 II-14〉 근무지별 근로자 현황 (2024년 상반기 기준)	21
〈표 II-15〉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행정시 문화예술 예산 현황	22
〈표 II-16〉 행정시별 인구 1인당 문화예술 예산 현황	23
〈표 II-17〉 단위별 제주시-서귀포시 문화예술예산 현황 (2025년 기준)	25
〈표 II-18〉 제주지역 행사 및 축제 현황	26
〈표 II-19〉 서귀포시 행사 및 축제 현황	27
〈표 II-20〉 제주지역 예술인 현황	29
〈표 II-21〉 읍면동별 예술인 현황	29
〈표 II-22〉 행정구역, 분야별 서귀포시 예술인 현황	31
〈표 II-23〉 성별, 연령별 서귀포시 예술인 현황	32
〈표 II-24〉 제주지역 도서관 현황	33
〈표 II-25〉 제주지역 박물관 현황	34
〈표 II-26〉 제주지역 미술관 현황	34
〈표 II-27〉 제주지역 공연장 현황	35
〈표 II-28〉 제주지역 문화의집 현황	36

〈표 II-29〉 제주지역 기타 문화예술 시설 현황	36
〈표 III-1〉 제주의 사회조사 ‘문화와 여가’ 영역 지표 중 활용된 지표 목록	43
〈표 III-2〉 서귀포시 지역별 여가활동 만족도	43
〈표 III-3〉 이주여부에 따른 서귀포시 지역별 여가활동 만족도	44
〈표 III-4〉 연령대에 따른 서귀포시 지역별 여가활동 만족도	45
〈표 III-5〉 서귀포시 지역별 우선 개선 필요 사항	46
〈표 III-6〉 서귀포시 지역별 문화 환경 만족도	47
〈표 III-7〉 이주여부 따른 서귀포시 문화환경 만족도	48
〈표 III-8〉 연령대에 따른 문화환경 만족도	49
〈표 III-9〉 제주지역별 연평균 문화활동 횟수	50
〈표 III-10〉 이주여부 따른 평균 연간 문화활동 횟수	50
〈표 III-11〉 연령대에 따른 평균 연간 문화활동 횟수	51
〈표 III-12〉 서귀포시 지역별 문화여가시설 수요 (1순위+2순위)	52
〈표 III-13〉 서귀포시 지역별 문화여가시설 수요 (1순위+2순위)	53
〈표 III-14〉 서귀포시 연령대별 문화여가시설 수요 (1순위+2순위)	54
〈표 III-15〉 서귀포시 문화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도	55
〈표 III-16〉 이주여부별 서귀포시 문화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도	55
〈표 III-17〉 연령대별 서귀포시 문화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도	56
〈표 III-18〉 면접조사 개요	57
〈표 III-19〉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58
〈표 III-20〉 면접조사 항목	59
〈표 III-21〉 면접 집단별 분석결과 요약	79
〈표 IV-1〉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도출	93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 수행 절차	5
〈그림 II-1〉 서귀포시 행정구역별 예술인 분포도	30
〈그림 IV-1〉 서귀포시 문화예술정책 효율성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도출	94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 향유 여건의 저하는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정주여건(또는 정주환경)이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을 사는 환경의 정도를 의미하며, 다수의 문헌들을 ‘삶의 질’을 정주환경과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임상호, 2021)
 - 정주여건의 지역 간 격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지역개발 정책의 전개 과정을 보면, 과거에는 개발중심적 접근으로 인해 주택이나 기반시설 등 필수생활시설만이 정주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인지되었음(김창현 외, 2004)
 - 그러나 최근 개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여가 향유 수준이나 문화만족도가 정주여건 판단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수로 활용되고 있음(이승아·임규채·이재필, 2018)
 - 즉,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여건은 그 지역의 정주여건이나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지역 경쟁력을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간 고질적인 인구 불균형 및 문화여가 서비스 격차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은 문화예술 향유에 있어서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임
 - 2024년 기준 서귀포시 지역 인구 수는 제주도 전체 인구의 27.2%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중시하는 민간서비스의 입지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내 문화여가서비스 시설 중 서귀포시가 차지하는 시설 비중은 27.7% 수준으로 나타남

- 또한 지역 내 가구로부터 서비스 시설간의 평균거리는 서귀포시 1.113m, 제주시 753m로 나타나는 등 서귀포시 주민들은 제주시에 비해 문화여가 서비스를 향유함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위해 행정은 다양한 예산의 투입을 통해 서귀포시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시도 하였으나, 시스템의 구축이 아닌 일시적인 행정예산의 반복적 투입은 사업의 종료와 함께 사업의 연속성을 잃어버리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
 - 제주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귀포시 지역에 제주문화중개소 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나, 시범사업의 종료와 함께 해당 사업이 전 도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이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서귀포시 지역의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 비중은 낮아지는 결과가 야기됨
 - 또한 서귀포시 지역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나, 최근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사업예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반면 최근 영어교육도시 조성,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 서귀포시 지역으로 외부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시설 및 플랫폼의 부족, 제한되고 단순화된 형태의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해 충분한 문화예술 서비스 향유가 어려운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원자료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중은 2016년 24.5%에서 2023년 20.3%로 감소한 반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중은 2016년 16.6%에서 2023년 24.5%로 증가하였음¹⁾
 - 또한 2023년 원자료 분석 결과, 문화여가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문화여가 시설 및 공간 확충(45.5%), 온라인 콘텐츠와 미디어 플랫폼 개발(21.8%), 공연 형식의 다양화(14.4%)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도출되었음
- 즉, 현재 서귀포시는 불균등한 문화여가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음

1) 문화환경 만족도로 제시된 값은 '잘 모름/비이용' 응답자를 제외한 분석 결과임

- 지역 간 정주여건 격차, 서귀포시 문화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만족도 감소 등의 키워드를 종합해 보면, '서귀포시의 열악한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지역의 문화예술 만족도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해석이 가능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귀포시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서귀포시 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함
 - 서귀포시 지역현황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귀포시가 직면한 내외부적인 여건을 분석함
 - 제주문화예술재단, 서귀포시 문화도시 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보유한 주민 대상 수요조사 원자료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여가서비스 만족도 및 수요 등을 도출함
 - SWOT분석을 통해 서귀포시가 처한 현재 환경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앞서 도출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을 도출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서귀포시 지역현황 분석

- 제주 읍면지역의 현황 및 변화 추이 등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일반현황 분석을 실시함
 - 구체적으로 지리적 특성, 인구, 산업/노동, 재정 측면에서 서귀포시가 직면해 있는 현재 상황을 구조적으로 분석함
-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서귀포시가 보유한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서귀포시가 보유한 각종 문화예술 자원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구체적으로 기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인 문화예술 사업 현황, 지역 예술인 현황, 문화/관광 자자원, 공간자원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2-2. 서귀포시 주민의 문화예술 여건 만족도 및 수요 분석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원자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귀포시 주민들의 주관적인 지역 문화예술 향유 여건 수준 및 만족도, 수요 등을 분석함
 - 사회조사 내 문화여가 영역의 조사항목 중 여가활동 만족도, 문화여가시설 접근성, 문화활동(관람횟수),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환경 개선사항 등의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인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만족도 및 수요 도출을 위해 지역, 이주 여부, 연령 등의 변수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함
- 서귀포시의 전반적인 문화예술 여건 및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의견,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정책 수요 등으로 구성된 면접 조사 자료를 분석함
 -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실시한 서귀포시 예술가, 문화활동가, 문화예술 수요자 대상 집단별 조사자료를 토대로, 주요 행위자들이 생각하는 서귀포시 지역의 문화예술 여건 및 정책 수요 분석을 실시함

2-3.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 앞서 도출한 정책환경 분석 및 수요조사 결과 분석 자료를 토대로 SWOT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귀포시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함
 - 앞서 실시한 지역현황 분석 및 문화예술 여건 만족도 분석, 수요분석 등의 결과를 토대로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함
 -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SO전략, ST전략, WO전략, WT전략 등을 세분화하여 제시함
- 이러한 일련의 연구과정을 그림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 <그림 I-1>과 같음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II. 서귀포시 지역현황 분석

1. 일반현황 분석

1-1. 지리적 특성

-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2개 행정시 중 하나로서 전체 면적은 871.51km² 수준임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면적은 1,850.28km²로서, 서귀포시의 면적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47.1%를 차지하고 있음
- 12개 동과 3개 읍, 2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심부에 동 지역이, 동서로 각각 3개, 2개의 읍면지역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를 띄고 있음
 - 서귀포시청 1청사가 위치해 있는 서홍동을 중심으로 구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구 시가지의 서쪽 지역에 서귀포시 제2청사를 중심으로 혁신도시를 비롯한 신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음
 - 서귀포시 전체 행정구역의 중앙부에 12개로 이루어진 동 지역이 입지해 있으며, 서쪽으로 대정읍과 안덕면, 동쪽으로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이 입지해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 행정 중심지인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전체 행정구역의 중앙 부분인 동 지역에 입지해 있음
 - 시청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은 성산읍, 대정읍으로서, 성산읍의 경우 직선거리로 약 38.8km, 대정읍의 경우 약 28.8km 떨어져 있으며, 차량으로 이동 시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 읍면지역의 경우 서귀포시 동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주도로(지방도1132호선) 또는 중산간도로(지방도1136호선)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제주시 동 지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516도로(지방도1131호선), 평화로(지방도1135호선), 1100도로(지방도1139호선), 번영로(국지도97호선), 남조로(국지도99호선) 등의 도로가 활용되고 있음

-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상 행정구역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고 생활권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된 동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생활편의시설들이 밀집하는 형태를 보이며, 따라서 읍면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생활편의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2024년 발표된 15분 도시 제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등 모든 영역에서 동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시설 접근성이 낮고, 이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동 지역의 인구밀집도 및 서비스 시설 입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제주시 읍면지역에 비해서도 서비스 이용의 제약을 경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1-2. 인구

1-2-1. 인구 현황

- 제주지역 인구 현황 분석 결과, 2024년 기준 서귀포시 인구 수는 182,020명으로 서, 제주도 전체 인구의 27.2%를 차지하고 있음
-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제주시의 경우 남성(49.9%) 대비 여성(50.1%)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귀포시의 경우 여성(49.7%) 대비 남성(50.3%)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II-1〉 제주지역 인구 현황 (2024년 기준)

(단위 : 명,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670,368 (100.0)	335,255 (50.0)	335,113 (50.0)
제주시	488,348 (100.0)	243,675 (49.9)	244,673 (50.1)
서귀포시	182,020 (100.0)	91,580 (50.3)	90,440 (49.7)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 제주지역 인구 변화 분석 결과, 지난 10년 간 제주지역의 인구는 7.4%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2024년 기준 제주지역 총 인구는 670,368명으로서, 10년 전인 2015년(624,395명)에 비해 45,973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2015~2024년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가 높은 인구증가 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24년 기준 서귀포시 인구 수는 182,020명으로서, 2015년(164,519명)에 비해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제주시의 인구 증가폭(6.2%)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II-2〉 제주지역 인구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15	2018	2021	2024	연평균 증가율		
					'15-'18	'18-'21	'21-'24
전체	624,395 (100.0)	667,191 (100.0)	676,759 (100.0)	670,368 (100.0)	(2.2)	(0.5)	(-0.3)
제주시	459,876 (73.7)	485,946 (72.8)	493,096 (72.9)	488,348 (72.8)	(1.9)	(0.5)	(-0.3)
서귀포시	164,519 (26.3)	181,245 (27.2)	183,663 (27.1)	182,020 (27.2)	(3.3)	(0.4)	(-0.3)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 2015~2024년 서귀포시 읍면동별 인구변화 분석 결과, 남원읍,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의 경우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남원읍의 경우 인구증가 후 감소세 전환으로 인해 인구감소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은 반면, 구도심 동 지역(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의 경우 지난 10년간 꾸준한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3〉 서귀포시 지역별 인구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15	2018	2021	2024	연평균 증가율		
					'15-'18	'18-'21	'21-'24
전체	164,519	181,245	183,663	182,020	(3.3)	(0.4)	(-0.3)
대정읍	18,492	21,364	22,197	22,006	(4.9)	(1.3)	(-0.3)
남원읍	18,650	19,038	18,664	18,124	(0.7)	(-0.7)	(-1.0)
성산읍	14,388	15,450	15,500	14,994	(2.4)	(0.1)	(-1.1)
안덕면	10,118	11,867	12,228	12,375	(5.5)	(1.0)	(0.4)
표선면	11,433	12,374	12,393	12,762	(2.7)	(0.1)	(1.0)
송산동	4,831	4,417	3,980	3,814	(-2.9)	(-3.4)	(-1.4)
정방동	2,745	2,333	2,136	2,122	(-5.3)	(-2.9)	(-0.2)
중앙동	4,383	3,879	3,301	3,113	(-4.0)	(-5.2)	(-1.9)
천지동	3,900	3,570	3,439	3,394	(-2.9)	(-1.2)	(-0.4)
효돈동	5,108	5,278	5,328	5,342	(1.1)	(0.3)	(0.1)
영천동	5,029	5,292	5,203	5,124	(1.7)	(-0.6)	(-0.5)
동홍동	22,625	22,885	23,201	22,877	(0.4)	(0.5)	(-0.5)
서홍동	10,034	10,570	11,072	11,122	(1.7)	(1.6)	(0.2)
대륜동	11,192	13,958	15,325	15,082	(7.6)	(3.2)	(-0.5)
대천동	8,103	13,675	13,824	13,710	(19.1)	(0.4)	(-0.3)
중문동	9,738	11,159	11,943	12,247	(4.6)	(2.3)	(0.8)
예래동	3,750	4,136	3,929	3,812	(3.3)	(-1.7)	(-1.0)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1-2-2. 연령대별 인구 현황

- 2024년 기준 제주지역 연령대별 인구 현황 분석 결과, 중장년 인구 비중(41.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청년(22.0%), 노년(18.9%), 아동·청소년(17.6%)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양 행정시의 연령대별 인구구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중장년 및 노년 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동·청소년, 청년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귀포시의 중장년(42.3%) 및 노년(22.9%) 비중은 제주시(41.1%, 17.5%)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아동·청소년(16.3%), 청년(18.5%)은 제주시(18.1%, 18.5%)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연령대는 노년층 및 청년층으로서, 양 행정시 간 각각 5.4%p, 4.8%p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표 II-4〉 제주지역 연령대별 인구 현황 (2024년 기준)

(단위 : 명, %)

구분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전체	670,368 (100.0)	488,348 (100.0)	182,020 (100.0)
아동·청소년 인구 (0~19세)	118,018 (17.6)	88,435 (18.1)	29,583 (16.3)
청년 인구 (20~39세)	147,597 (22.0)	113,862 (23.3)	33,735 (18.5)
중장년 인구 (40~64세)	277,768 (41.4)	200,800 (41.1)	76,968 (42.3)
노년 인구 (65세 이상)	126,985 (18.9)	85,251 (17.5)	41,734 (22.9)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 2015~2024년 서귀포시 연령대별 인구 변화 분석 결과, 2010년대 중반까지 전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아동·청소년, 청년층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지난 10년 간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연령층은 노년 및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년층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청년층은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2024년 기준 서귀포시 노년인구 비중은 22.9%로서, 10년전에 비해 5.3% 증가한 반면, 청년인구 비중은 2015년 23.0%에서 2024년 18.5%로 4.5%p 감소하였음

〈표 II-5〉 서귀포시 연령대별 인구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15	2018	2021	2024	연평균 증가율		
					'15-'18	'18-'21	'21-'24
전체	164,519 (100.0)	181,245 (100.0)	183,663 (100.0)	182,020 (100.0)	(3.3)	(0.4)	(-0.3)
아동·청소년 인구 (0~19세)	32,559 (19.8)	33,377 (18.4)	31,796 (17.3)	29,583 (16.3)	(0.8)	(-1.6)	(-2.4)
청년 인구 (20~39세)	37,885 (23.0)	41,681 (23.0)	38,193 (20.8)	33,735 (18.5)	(3.2)	(-2.9)	(-4.1)
중장년 인구 (40~64세)	65,096 (39.6)	73,793 (40.7)	76,826 (41.8)	76,968 (42.3)	(4.3)	(1.4)	(0.1)
노년 인구 (65세 이상)	28,979 (17.6)	32,394 (17.9)	36,848 (20.1)	41,734 (22.9)	(3.8)	(4.4)	(4.2)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 지난 10년 간 서귀포시 지역별 아동·청소년 인구변화 분석 결과, 대정읍, 대륜동, 대천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하였음
 - 2015~2024년 서귀포시 읍면동별 아동·청소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대정읍(18.8%), 대륜동(16.4%), 대천동(73.7%)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타 지역의 경우 인구감소현상이 발생하였음
 - 특히 구 도심지역인 송산동(-45.4%), 정방동(-48.3%), 중앙동(-51.2%)의 경우 지난 10년간 절반 수준의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하였음
- 3개년 단위로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의 경우 표선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인구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서귀포 지역의 아동·청소년 인구감소 현상은 인구의 사회적 감소와 저출생 현상이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결과임
 - 다만 표선면 아동·청소년 인구증가 현상의 경우 표선고등학교의 IB 교육과정 운영이 청소년 인구 유인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여짐

〈표 II-6〉 서귀포시 지역별 아동·청소년 인구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15	2018	2021	2024	연평균 증가율		
					'15-'18	'18-'21	'21-'24
전체	32,559	33,377	31,796	29,583	(0.8)	(-1.6)	(-2.4)
대정읍	3,677	4,306	4,515	4,370	(5.4)	(1.6)	(-1.1)
남원읍	3,352	2,952	2,553	2,207	(-4.1)	(-4.7)	(-4.7)
성산읍	2,201	2,078	1,941	1,689	(-1.9)	(-2.2)	(-4.5)
안덕면	1,766	1,849	1,828	1,733	(1.5)	(-0.4)	(-1.8)
표선면	1,945	1,863	1,786	2,034	(-1.4)	(-1.4)	(4.4)
송산동	851	677	521	465	(-7.3)	(-8.4)	(-3.7)
정방동	389	283	232	201	(-10.1)	(-6.4)	(-4.7)
중앙동	668	521	367	326	(-8.0)	(-11.0)	(-3.9)
천지동	581	463	380	349	(-7.3)	(-6.4)	(-2.8)
효돈동	919	809	800	791	(-4.2)	(-0.4)	(-0.4)
영천동	889	808	722	616	(-3.1)	(-3.7)	(-5.2)
동홍동	6,152	5,584	5,098	4,447	(-3.2)	(-3.0)	(-4.5)
서홍동	2,638	2,686	2,660	2,566	(0.6)	(-0.3)	(-1.2)
대륜동	2,295	2,812	2,945	2,672	(7.0)	(1.6)	(-3.2)
대천동	1,544	2,937	2,839	2,682	(23.9)	(-1.1)	(-1.9)
중문동	2,081	2,173	2,129	2,005	(1.5)	(-0.7)	(-2.0)
예래동	611	576	480	430	(-1.9)	(-5.9)	(-3.6)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 지난 10년 간 서귀포시 지역별 청년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안덕면,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을 제외한 모든 읍면동에서 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2015~2024년 서귀포시 읍면동별 청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안덕면(7.3%), 대륜동(11.7%), 대천동(39.2%), 중문동(18.2%)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타 지역의 경우 인구감소현상이 발생하였음
 - 특히 구 도심지역인 송산동(-39.5%), 정방동(-48.0%), 중앙동(-48.5%)의 경우 지난 10년간 절반 수준의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하였음
- 3개년 단위로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청년 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2021~2024년 청년인구 연평균 증가율 분석 결과, 지난 3년 간 가장 빠르게 청년 인구 감소한 지역은 예래동(-5.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산읍(-5.6%), 송산동, 효돈동(-5.5%) 순으로 빠르게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표 II-7〉 서귀포시 지역별 청년 인구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15	2018	2021	2024	연평균 증가율		
					'15-'18	'18-'21	'21-'24
전체	37,885	41,681	38,193	33,735	(3.2)	-2.9	0(-4.1)
대정읍	3,789	4,149	3,796	3,320	(3.1)	(-2.9)	(-4.4)
남원읍	4,061	3,917	3,422	2,951	(-1.2)	(-4.4)	(-4.8)
성산읍	2,978	3,162	2,793	2,353	(2.0)	(-4.1)	(-5.6)
안덕면	2,244	3,001	2,678	2,408	(10.2)	(-3.7)	(-3.5)
표선면	2,497	2,643	2,258	1,923	(1.9)	(-5.1)	(-5.2)
송산동	1,083	879	777	655	(-6.7)	(-4.0)	(-5.5)
정방동	696	485	392	362	(-11.3)	(-6.9)	(-2.6)
중앙동	960	768	570	494	(-7.2)	(-9.5)	(-4.7)
천지동	895	741	680	633	(-6.1)	(-2.8)	(-2.4)
효돈동	1,147	1,195	1,091	921	(1.4)	(-3.0)	(-5.5)
영천동	1,053	1,092	1,007	877	(1.2)	(-2.7)	(-4.5)
동홍동	5,441	5,482	5,082	4,700	(0.3)	(-2.5)	(-2.6)
서홍동	2,603	2,602	2,487	2,274	(0.0)	(-1.5)	(-2.9)
대륜동	2,890	3,611	3,714	3,228	(7.7)	(0.9)	(-4.6)
대천동	2,166	3,950	3,521	3,014	(22.2)	(-3.8)	(-5.1)
중문동	2,412	2,847	3,004	2,851	(5.7)	(1.8)	(-1.7)
예래동	970	1,157	921	771	(6.1)	(-7.3)	(-5.8)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 지난 10년 간 서귀포시 지역별 중장년 인구변화 분석 결과,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이외 지역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였음
 - 2015~2024년 서귀포시 읍면동별 중장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송산동(-21.1%), 정방동(-19.3%), 중앙동(-35.9%), 천지동(-12.9%)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타 지역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였음
 - 특히 서귀포 혁신도시가 입지하고 있는 대륜동(47.1%), 대천동(76.3%)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급격한 인구증가 현상이 발생하였음
- 3개년 단위로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동부 읍면지역 및 구 도심 지역의 중장년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서부 읍면지역의 경우 영어교육도시 입지 등으로 인해 중장년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반면, 표선면을 제외한 동부 읍면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중장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동 지역의 경우 구 도심 지역에 해당하는 송산동(-1.7%), 정방동(-0.7%), 중앙동(-4.3%), 천지동(-0.8%)의 인구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8〉 서귀포시 지역별 증장년 인구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15	2018	2021	2024	연평균 증가율		
					'15-'18	'18-'21	'21-'24
전체	65,096	73,793	76,826	76,968	(4.3)	(1.4)	(0.1)
대정읍	7,277	8,809	9,357	9,397	(6.6)	(2.0)	(0.1)
남원읍	7,298	7,872	8,019	7,740	(2.6)	(0.6)	(-1.2)
성산읍	6,072	6,784	6,873	6,558	(3.8)	(0.4)	(-1.6)
안덕면	3,968	4,703	5,151	5,308	(5.8)	(3.1)	(1.0)
표선면	4,763	5,377	5,495	5,571	(4.1)	(0.7)	(0.5)
송산동	1,999	1,902	1,662	1,578	(-1.6)	(-4.4)	(-1.7)
정방동	1,195	1,084	984	964	(-3.2)	(-3.2)	(-0.7)
중앙동	2,013	1,805	1,472	1,291	(-3.6)	(-6.6)	(-4.3)
천지동	1,723	1,616	1,538	1,500	(-2.1)	(-1.6)	(-0.8)
효돈동	1,969	2,112	2,116	2,158	(2.4)	(0.1)	(0.7)
영천동	1,982	2,199	2,160	2,167	(3.5)	(-0.6)	(0.1)
동홍동	8,599	9,075	9,639	9,711	(1.8)	(2.0)	(0.2)
서홍동	3,624	3,936	4,356	4,481	(2.8)	(3.4)	(0.9)
대륜동	4,285	5,494	6,178	6,302	(8.6)	(4.0)	(0.7)
대천동	3,163	5,059	5,444	5,575	(16.9)	(2.5)	(0.8)
중문동	3,745	4,402	4,801	5,098	(5.5)	(2.9)	(2.0)
예래동	1,421	1,564	1,581	1,569	(3.2)	(0.4)	(-0.3)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 지난 10년 간 서귀포시 지역별 노년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노년 인구 증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륜동, 대천동, 중앙동에서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였음
 - 2015~2024년 서귀포시 읍면동별 노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대천동(98.3%), 대륜동(67.2%), 중앙동(65.2%) 순으로 큰 폭의 노년인구 증가 현상이 발생하였음
 - 다만 지역별 증가 속도를 비교 분석해보면, 최근 3년 간 대륜동(연평균 증가율 5.0%)보다 동홍동(연평균 증가율 5.9%)에서 더욱 빠르게 노년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II-9〉 서귀포시 지역별 노년 인구 변화

(단위 : 명, %)

구분	2015	2018	2021	2024	연평균 증가율		
					'15-'18	'18-'21	'21-'24
전체	28,979	32,394	36,848	41,734	(3.8)	(4.4)	(4.2)
대정읍	3,749	4,100	4,529	4,919	(3.0)	(3.4)	(2.8)
남원읍	3,939	4,297	4,670	5,226	(2.9)	(2.8)	(3.8)
성산읍	3,137	3,426	3,893	4,394	(3.0)	(4.4)	(4.1)
안덕면	2,140	2,314	2,571	2,926	(2.6)	(3.6)	(4.4)
표선면	2,228	2,491	2,854	3,234	(3.8)	(4.6)	(4.3)
송산동	898	959	1,020	1,116	(2.2)	(2.1)	(3.0)
정방동	465	481	528	595	(1.1)	(3.2)	(4.1)
중앙동	742	785	892	1,002	(1.9)	(4.4)	(4.0)
천지동	701	750	841	912	(2.3)	(3.9)	(2.7)
효돈동	1,073	1,162	1,321	1,472	(2.7)	(4.4)	(3.7)
영천동	1,105	1,193	1,314	1,464	(2.6)	(3.3)	(3.7)
동홍동	2,433	2,744	3,382	4,019	(4.1)	(7.2)	(5.9)
서홍동	1,169	1,346	1,569	1,801	(4.8)	(5.2)	(4.7)
대륜동	1,722	2,041	2,488	2,880	(5.8)	(6.8)	(5.0)
대천동	1,230	1,729	2,020	2,439	(12.0)	(5.3)	(6.5)
중문동	1,500	1,737	2,009	2,293	(5.0)	(5.0)	(4.5)
예래동	748	839	947	1,042	(3.9)	(4.1)	(3.2)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 구 도심에 해당하는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등의 지역은 지난 10년 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인구는 감소하고 노년 인구는 증가하는 인구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 2024년 기준 서귀포시 구 도심 지역의 고령화지수²⁾는 송산동 348.8, 정방동 428.1, 중앙동 430.0, 천지동 401.8으로서, 대륜동 142.6, 대천동 115.9 등 신도심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읍면지역의 경우 영어교육도시, 표선고등학교 IB교육과정 운영 등 아동·청소년 인구 유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몇 개의 특정 지역을 제외하곤 지역에 비해 낮은 고령화지수를 보이고 있음

2) 고령화지수는 소년 인구(14세 이하 인구) 대비 노인 인구(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으로서, 인구의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

- 2024년을 기준으로 대정읍 158.0, 표선면 212.9, 안덕면 236.0 수준의 고령화지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동홍동(135.9), 중문동(155.9) 등과 유사한 수준임
- 다만 동부 읍면지역에 위치한 남원읍(349.3) 성산읍(365.6)의 경우, 구 도심 지역과 유사한 정도의 높은 수준의 고령화지수를 나타내고 있음

1-3. 산업/노동

1-3-1. 산업 현황

- 2022년 전국 사업체 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 전체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관광 관련 사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서귀포시 사업체 수는 24,879개로서, 이 중 54.0%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도매 및 소매업(24.0%), 숙박 및 음식점업(3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동 지역에 비해 관광 사업체의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읍면지역의 관광사업체 비중은 (56.5%)로서, 동 지역(5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표 II-10〉 서귀포시 사업체 현황 (2022년 기준)

(단위 : 명, %)

구분	전체		동 지역		읍면지역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전체	24,879	(100.0)	13,440	(100.0)	11,439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301	(1.2)	62	(0.5)	239	(2.1)
광업	3	(0.0)	0	(0.0)	3	(0.0)
제조업	934	(3.8)	448	(3.3)	486	(4.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21	(1.7)	36	(0.3)	385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5	(0.3)	36	(0.3)	29	(0.3)
건설업	1,785	(7.2)	1,113	(8.3)	672	(5.9)

구분	전체		동 지역		읍면지역	
		비중		비중		비중
도매 및 소매업	5,983	(24.0)	3,387	(25.2)	2,596	(22.7)
운수 및 창고업	1,480	(5.9)	932	(6.9)	548	(4.8)
숙박 및 음식점업	7,463	(30.0)	3,594	(26.7)	3,869	(33.8)
정보통신업	196	(0.8)	128	(1.0)	68	(0.6)
금융 및 보험업	179	(0.7)	111	(0.8)	68	(0.6)
부동산업	938	(3.8)	500	(3.7)	438	(3.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82	(2.3)	395	(2.9)	187	(1.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79	(1.9)	271	(2.0)	208	(1.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5	(0.3)	36	(0.3)	29	(0.3)
교육 서비스업	963	(3.9)	532	(4.0)	431	(3.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67	(2.3)	345	(2.6)	222	(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62	(2.7)	365	(2.7)	297	(2.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13	(7.3)	1,149	(8.5)	664	(5.8)

출처 : MDIS, 전국사업체조사(2022)

- 2022년 기준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 분석 결과, 전체 사업체 중 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88.6%로 나타났으며, 특히 1인 사업체 비중이 60.3%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서귀포시 5인 미만 사업체는 22,007개로서, 전체 사업체의 88.6%(60.3%+28.3%) 수준이며, 특히 1인 사업체는 14,980개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업종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 사업체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 및 창고업,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관광산업 관련 업종인 것으로 분석됨
 - 전체 업종 중 1인 사업체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 및 창고업으로, 전체 사업체의 93.0%가 1인 사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1인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관광산업 관련 업종으로서, 숙박 및 음식점업이 3,761개, 도매 및 소매업이 3,673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1인 사업체의 49.6%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11〉 서귀포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 (2022년 기준)

(단위 : 명, %)

구분	전체		1인		2인 이상 ~ 4인 미만		5인 이상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전체	24,844	(100.0)	14,980	(60.3)	7,027	(28.3)	2,837	(11.4)
농업, 임업 및 어업	296	(100.0)	78	(26.4)	100	(33.8)	118	(39.9)
제조업	934	(100.0)	505	(54.1)	301	(32.2)	128	(13.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20	(100.0)	405	(96.4)	9	(2.1)	6	(1.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57	(100.0)	15	(26.3)	22	(38.6)	20	(35.1)
건설업	1,785	(100.0)	1,172	(65.7)	337	(18.9)	276	(15.5)
도매 및 소매업	5,983	(100.0)	3,673	(61.4)	1,856	(31.0)	454	(7.6)
운수 및 창고업	1,480	(100.0)	1,377	(93.0)	49	(3.3)	54	(3.6)
숙박 및 음식점업	7,463	(100.0)	3,761	(50.4)	2,939	(39.4)	763	(10.2)
정보통신업	192	(100.0)	130	(67.7)	36	(18.8)	26	(13.5)
금융 및 보험업	177	(100.0)	18	(10.2)	35	(19.8)	124	(70.1)
부동산업	938	(100.0)	725	(77.3)	166	(17.7)	47	(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82	(100.0)	409	(70.3)	127	(21.8)	46	(7.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79	(100.0)	282	(58.9)	152	(31.7)	45	(9.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3	(100.0)	2	(3.8)	6	(11.3)	45	(84.9)
교육 서비스업	963	(100.0)	587	(61.0)	215	(22.3)	161	(1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67	(100.0)	75	(13.2)	179	(31.6)	313	(55.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62	(100.0)	370	(55.9)	156	(23.6)	136	(20.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13	(100.0)	1,396	(77.0)	342	(18.9)	75	(4.1)

주 : 결측값 제외

출처 : MDIS, 전국사업체조사(2022)

1-3-2. 노동 현황

-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시에 비해 임금근로자 비중이 낮고,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음
 - 서귀포시 임금근로자 비중은 54.5%로서, 제주도(68.0%)에 비해 13.5%p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임금근로자 비중(45.5%)은 제주도(31.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연령대별로 서귀포시 근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 20대 이하 연령대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93.3%로서, 비임금근로자 비중(6.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의 경우 임금근로자(52.0%)와 비임금근로자 비중(48.0%)이 유사한 특성을 보임
 - 60대 이상의 경우 정년으로 인해 상용근로자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12〉 제주지역 연령별 근로자 현황 (2024년 상반기 기준)

(단위 : 명, %)

구분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400,979 (100.0)	185,873 (46.4)	57,763 (14.4)	14,212 (3.5)	114,037 (28.4)	29,094 (7.3)
제주시	289,749 (100.0)	144,064 (49.7)	42,613 (14.7)	10,569 (3.6)	75,449 (26.0)	17,054 (5.9)
서귀포시	111,230 (100.0)	41,809 (37.6)	15,150 (13.6)	3,643 (3.3)	38,588 (34.7)	12,040 (10.8)
20대 이하	9,345 (100.0)	6,505 (69.6)	1,947 (20.8)	270 (2.9)	623 (6.7)	0 (0.0)
30대	15,707 (100.0)	10,192 (64.9)	1,069 (6.8)	75 (0.5)	3,020 (19.2)	1,351 (8.6)
40대	23,687 (100.0)	11,634 (49.1)	2,272 (9.6)	810 (3.4)	7,371 (31.1)	1,600 (6.8)
50대	27,056 (100.0)	9,775 (36.1)	3,075 (11.4)	1,211 (4.5)	10,447 (38.6)	2,548 (9.4)
60대 이상	35,435 (100.0)	3,703 (10.5)	6,787 (19.2)	1,277 (3.6)	17,127 (48.3)	6,541 (18.5)

주 : 시군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원자료를 분석한 값으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출처 : MDIS, 지역별고용조사(2024 상반기)

- 2024년 상반기 기준 주요 산업별 근로자 현황 분석 결과,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인 것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 전체 근로자 중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중인 근로자 수는 30,265명으로서, 전체 근로자의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15,241명), 도매 및 소매업(11,208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경우 임금근로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타 사업에 비해 근로자 수가 많은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업종은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각각 99.6%, 95.2% 근로자가 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각각 87.6%, 54.5%가 비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분석됨

〈표 II-13〉 주요 산업별 서귀포시 근로자 현황 (2024년 상반기 기준)

(단위 : 명, %)

구분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111,235 (100.0)	41,812 (37.6)	15,151 (13.6)	3,643 (3.3)	38,590 (34.7)	12,039 (10.8)
농업, 임업 및 어업	30,265 (100.0)	1,451 (4.8)	851 (2.8)	1,452 (4.8)	18,164 (60.0)	8,347 (27.6)
건설업	7,941 (100.0)	2,871 (36.2)	389 (4.9)	1,343 (16.9)	3,258 (41.0)	80 (1.0)
도매 및 소매업	11,208 (100.0)	5,153 (46.0)	1,431 (12.8)	145 (1.3)	3,521 (31.4)	958 (8.5)
숙박 및 음식점업	15,241 (100.0)	5,090 (33.4)	1,613 (10.6)	227 (1.5)	6,100 (40.0)	2,211 (14.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800 (100.0)	5,257 (67.4)	2,543 (32.6)	0 (0.0)	0 (0.0)	0 (0.0)
교육 서비스업	6,213 (100.0)	3,927 (63.2)	1,124 (18.1)	0 (0.0)	1,162 (18.7)	0 (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844 (100.0)	5,312 (54.0)	4,057 (41.2)	52 (0.5)	423 (4.3)	0 (0.0)
기타	22,723 (100.0)	12,751 (56.1)	3,143 (13.8)	424 (1.9)	5,962 (26.2)	443 (1.9)

주 : 시군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원자료를 분석한 값으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출처 : MDIS, 지역별고용조사(2024 상반기)

- 2024년 상반기 기준 근무지별 근로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 지역의 지역 외 근로자 비중은 제주시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중 서귀포시 이외의 지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비중은 5.2%로서, 제주시(4.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서귀포시 지역에 거주하는 상용근로자 중 지역 외 근로자 비중은 8.9%로서, 제주시(4.7%)에 비해 4.2%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II-14〉 근무지별 근로자 현황 (2024년 상반기 기준)

(단위 : 명, %)

구분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400,982	185,874	57,764	14,212	114,037	29,095
제주시	289,749 (100.0)	144,064 (100.0)	42,612 (100.0)	10,569 (100.0)	75,448 (100.0)	17,056 (100.0)
지역 내 근로	277,823 (95.9)	137,308 (95.3)	41,839 (98.2)	10,104 (95.6)	72,499 (96.1)	16,073 (94.2)
지역 외 근로	11,926 (4.1)	6,756 (4.7)	773 (1.8)	465 (4.4)	2,949 (3.9)	983 (5.8)
서귀포시	111,233 (100.0)	41,810 (100.0)	15,152 (100.0)	3,643 (100.0)	38,589 (100.0)	12,039 (100.0)
지역 내 근로	105,459 (94.8)	38,079 (91.1)	14,440 (95.3)	3,356 (92.1)	37,785 (97.9)	11,799 (98.0)
지역 외 근로	5,774 (5.2)	3,731 (8.9)	712 (4.7)	287 (7.9)	804 (2.1)	240 (2.0)

주 : 시군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원자료를 분석한 값으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출처 : MDIS, 지역별고용조사(2024 상반기)

1-4. 재정

- 2025년 기준 서귀포시 총 예산액은 약 1조 1,857억원으로서, 이는 제주시 총 예산액(약 1조 9,385억원)의 약 61.2% 수준임
 - 서귀포시 부서별 예산액을 비교 분석해보면, 노인장애인과(2,128억원, 18.0%), 총무과(1,355억원, 11.4%), 여성가족과(1,189억원, 10.0%) 순으로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됨
- 2025년 기준 서귀포시 총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중은 1.2%로서, 제주시(1.2%)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기준 제주시와 서귀포시 문화예술 예산액 비중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10년간 평균치는 제주시(1.0%)에 비해 서귀포시(1.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II-15〉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행정시 문화예술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총 예산	문화예술 예산	비중	총 예산	문화예술 예산	비중
2025	1,938,502,895	23,398,358	(1.2)	1,185,688,182	13,642,869	(1.2)
2024	2,028,007,203	14,569,997	(0.7)	1,173,309,588	14,633,967	(1.2)
2023	1,863,909,375	19,078,287	(1.0)	1,148,704,909	27,085,749	(2.4)
2022	1,772,767,514	18,175,510	(1.0)	1,073,088,217	24,311,794	(2.3)
2021	1,677,596,792	18,100,113	(1.1)	1,023,972,185	12,383,932	(1.2)
2020	1,639,841,952	12,656,444	(0.8)	950,309,742	9,784,426	(1.0)
2019	1,386,529,033	13,276,440	(1.0)	854,325,929	9,408,104	(1.1)
2018	1,213,389,721	18,615,144	(1.5)	783,031,323	9,877,840	(1.3)
2017	1,053,514,887	11,446,334	(1.1)	699,241,483	7,813,253	(1.1)
2016	1,013,704,784	9,163,486	(0.9)	655,977,496	8,818,981	(1.3)
평균	1,558,776,416	15,848,011	(1.0)	954,764,905	13,776,092	(1.4)

주1 : 총 예산, 문화예술 예산은 시 본청 및 문화예술과 예산액 기준

주2 : 연도별 예산서의 조직별 예산액(본예산) 기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2025년 기준 서귀포시 주민등록인구 1인당 문화예술 예산액은 7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제주시에 비해 약 1.6배 정도 높은 수치임
 - 2025년 1월 기준 서귀포시 인구 수는 181,837만명으로서, 제주시의 37.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예술 예산액은 61.2%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지난 10년간 서귀포시 주민등록인구 1인당 평균 문화예술 예산액은 76.1천원으로서, 제주시(32.5천원)의 2.3배 수준임
 - 지난 10년 간 양 행정시 모두 시설비 사업 등으로 인해 특정 회계연도에 예산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인구 1인당 문화예술 예산액은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제주시의 경우 시민회관 복합화 사업 추진에 따라 2025년 시설비 예산 급격히 증가하여, 전년 대비 160.6%의 예산 증가가 이루어진 바 있음
 - 서귀포시의 경우 2022~2023년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설비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표 II-16〉 행정시별 인구 1인당 문화예술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명)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문화예술 예산	인구 수	예산액/1인	문화예술 예산	인구 수	예산액/1인
2025	23,398,358	487,623	48.0	13,642,869	181,837	75.0
2024	14,569,997	488,348	29.8	14,633,967	182,020	80.4
2023	19,078,287	491,654	38.8	27,085,749	183,598	147.5
2022	18,175,510	493,389	36.8	24,311,794	184,770	131.6
2021	18,100,113	493,096	36.7	12,383,932	183,663	67.4
2020	12,656,444	492,466	25.7	9,784,426	182,169	53.7
2019	13,276,440	489,405	27.1	9,408,104	181,584	51.8
2018	18,615,144	485,946	38.3	9,877,840	181,245	54.5
2017	11,446,334	478,700	23.9	7,813,253	178,383	43.8
2016	9,163,486	470,665	19.5	8,818,981	170,932	51.6
평균	15,848,011	487,129	32.5	13,776,092	181,020	76.1

주1 : 문화예술 예산은 각 행정시별 문화예술과 예산액 기준

주2 : 연도별 예산서의 조직별 예산액(본예산) 기준

주3 : 2025년 인구는 1월 인구 수 기준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2025년 기준 양 행정시의 단위별 문화예술 예산 현황 분석 결과, 제주시의 경우 '시설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시의 경우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추진에 따라 시설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과목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인 것으로 나타남
 -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투입되는 시설비 및 감리비 예산을 제외할 경우 제주시의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은 66.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양 행정시 모두 100명 이상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³⁾, 이로 인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의 민간위탁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귀포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분석됨
 - 2025년 기준 서귀포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운영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민간위탁금 예산은 1,770,000천원으로서, 서귀포시 문화예술 예산의 1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시설비의 경우 서귀포시에 비해 제주시가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제주시에 진행중인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제외한다면, 서귀포시가 시설비 측면에서 훨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제외할 경우 제주도 문화예술 예산 중 시설비및부대비 예산 비중은 1.4%로서, 서귀포시(18.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투입되는 시설비 및 감리비 예산은 11,528,613천원으로서, 2025년도 제주도 문화예술 예산의 49.3%를 차지하고 있음

3) 2025년 현재 제주시의 경우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서귀포시의 경우 관악단과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음

〈표 II-17〉 단위별 제주시-서귀포시 문화예술예산 현황 (2025년 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비중		비중
전체	23,398,358	(100.0)	13,642,869	(100.0)
일반운영비	1,622,192	6.9	1,541,227	(11.3)
사무관리비	457,150	2.0	362,417	(2.7)
공공운영비	150,022	0.6	189,410	(1.4)
행사운영비	866,340	3.7	859,600	(6.3)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8,680	0.6	129,800	(1.0)
일반보전금	8,411,349	35.9	6,264,994	(45.9)
행사실비지원금	491,200	2.1	286,900	(2.1)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7,828,424	33.5	5,768,430	(42.3)
기타보상금	0	0.0	209,664	(1.5)
민간인국외여비	18,000	0.1	-	-
외빈초청여비	73,725	0.3	-	-
민간이전	1,354,100	5.8	3,093,200	(22.7)
민간경상사업보조	298,000	1.3	253,500	(1.9)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28,500	1.8	296,500	(2.2)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	0.1	351,500	(2.6)
민간위탁금	607,600	2.6	2,190,000	(16.1)
보험금	0	0.0	1,700	(0.0)
시설비및부대비	11,693,613	50.0	2,570,000	(18.8)
시설비	10,519,613	45.0	2,530,000	(18.5)
감리비	1,154,000	4.9		
행사관련시설비	20,000	0.1	40,000	(0.3)
기타	317,104	1.4	173,448	(1.3)

주1 : 문화예술 예산은 각 행정시별 문화예술과 예산액 기준

주2 : 연도별 예산서의 조직별 예산액(본예산) 기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2. 문화예술 자원 현황 분석

2-1. 제주지역 행사 및 축제 현황

- 제주지역 행사 및 축제 현황 분석 결과, 서귀포시에 비해 제주시의 축제 및 행사 빈도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25년 4월 15일 기준 제주관광공사 VISIT JEJU에 공개된 제주지역 축제 및 행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개최되었거나 개최 예정인 행사는 53개로서, 서귀포시(45개)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제주시의 경우 읍면지역에 비해 동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나 행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귀포시의 경우 읍면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축제 빈도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의 경우 읍면지역(26개)이 동 지역(19개)에 비해 행사나 축제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롬왓, 휴애리, 마노르블랑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관광 사업장들이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주로 입지하면서 발생한 결과인 것으로 보여짐

〈표 II-18〉 제주지역 행사 및 축제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개소	비중
전체	98	(100.0)	53	(54.1)	45	(45.9)
읍면지역	47	(100.0)	21	(44.7)	26	(55.3)
동 지역	51	(100.0)	32	(62.7)	19	(37.3)

주 : 2025.4.15. 기준

출처 : 제주관광공사, VISITJEJU

〈표 II-19〉 서귀포시 행사 및 축제 현황

연번	행사명	장소
1	나강개인전	표선면
2	보름왓 톨립축제	표선면
3	한라산 청정고사리 축제	남원읍
4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안덕면
5	THE WE 제주 봄꽃 대축제	시내
6	가파도 청보리축제	대정읍
7	빛의 벙커, '세잔, 프로방스의 빛'	성산읍
8	휴애리 동백축제	남원읍
9	마노르블랑 핑크물리축제	안덕면
10	휴애리 핑크물리축제	남원읍
11	보름왓 축제	표선면
12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	시내
13	휴애리 봄 수국축제	남원읍
14	휴애리 매화축제	남원읍
15	최남단 방어축제	대정읍
16	세계자연유산 썸머타임	성산읍
17	아트제주	시내
18	아이스버킷 챌린지 Run in JEJU	성산읍
19	새연교 음악분수	시내
20	마노르블랑 동백꽃 감귤체험 축제	안덕면
21	마노르블랑 수국축제	안덕면
22	한란단란 피크닉	시내
23	구석구석 문화배달, '서귀포 여름 난장'	시내
24	서귀포문화재 야행	시내
25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시내
26	플리마켓, '신화(愛)풍당'	안덕면
27	휴애리 유채꽃 축제	남원읍
28	국제초콜릿쇼	표선면
29	예래생태한가위축제	시내
30	제주허브동산 꽃잔디 축제	표선면
31	서귀포겨울바다 국제펍권수영대회	시내
32	봄꽃하영이서 굴꽃향기 축제	시내
33	표선해변 하안모래축제	표선면
34	ICC JEJU 문화광장, '바로크양상블 뮤직앙시엔느'	시내
35	토요일 밤의 성산	성산읍
36	서귀포 오페라 페스티벌	시내
37	하영올레 걷기축제	시내

연번	행사명	장소
38	제주애니아일랜드 페스티벌	시내
39	ICC JEJU 문화광장, '보헤미안 재즈 듀오 콘서트'	시내
40	영천동 해바라기 축제	시내
41	서귀포봄맞이축제	시내
42	감굴아트전, '굴빛이 물들다. 예술로 이르다'	시내
43	서귀포과학문화축전	시내
44	문화도시 서귀포 로컬브랜드 마켓 놀명장	시내
4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시내

주 : 2025.4.15. 기준

출처 : 제주관광공사, VISITJEJU

2-2. 예술인 현황

- 제주지역 예술인 현황 분석 결과, 제주시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거주중인 예술인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원자료 분석 결과, 2024년 12월 기준 제주시 동 지역에 거주중인 예술인 수는 1,732명으로 제주도내 거주중인 전체 예술인의 8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수는 267명으로서, 도내 전체 예술인의 9.2%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주민등록인구 대비 예술인 비중 분석 결과, 양 행정시 간 큰 격차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 지역과 읍면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24년 12월 기준 읍면지역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예술인 비중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0.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동 지역의 경우 서귀포시 0.6%, 제주시 0.5%로 읍면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20〉 제주지역 예술인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전체	2,895	(100.0)	2,057	(100.0)	838	(100.0)
읍면지역	592	(20.4)	325	(15.8)	267	(31.9)
동 지역	2,303	(79.6)	1,732	(84.2)	571	(68.1)

주 : 2024.12.31. 기준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부자료

- 읍면동별 예술인 현황 분석 결과, 읍면지역의 경우 전 지역에 예술인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 지역의 경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읍면지역의 경우 안덕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50인 이상의 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 지역의 경우 동흥동(66명), 강정동(46명), 서흥동(64명), 서호동(33명) 등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21〉 읍면동별 예술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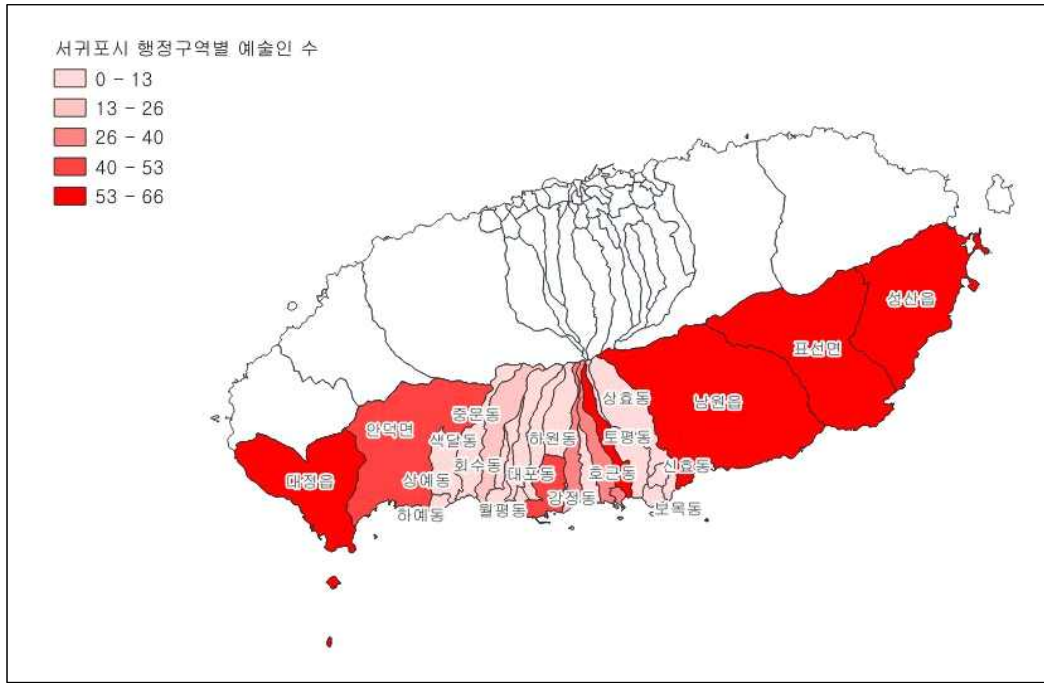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예술인 수	구분	예술인 수	구분	예술인 수			
읍면	대정읍	58	법정동	법환동	14	법정동	월평동	3
	남원읍	56		보목동	7		중문동	25
	성산읍	56		상예동	4		토평동	6
	안덕면	43		상효동	5		하예동	4
	표선면	54		색달동	3		하원동	5
법정동	강정동	46	서귀동	28	하효동	9		
	대표동	9	서호동	33	호근동	6		
	도순동	5	서흥동	34	회수동	2		
	동흥동	66	신효동	11				

주 : 2024.12.31. 기준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부자료

〈그림 II-1〉 서귀포시 행정구역별 예술인 분포도



- 행정구역, 분야별 서귀포시 예술인 현황 분석 결과, 미술분야 예술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악, 문학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서귀포시에 거주중인 전체 예술인 중 미술분야 예술인은 176명으로서 전체 예술인의 2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음악(19.9%), 문학(16.6%)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 비교 분석 결과, 순위에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나, 읍면지역에는 미술분야 예술인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음악 및 문학분야 예술인 비중은 동 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읍면지역 예술인 중 미술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1.5%로서, 동 지역(28.3%)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음악(17.6%)과 문학(15.0%)은 동 지역(음악 21.8%, 문학 17.8%)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 II-22〉 행정구역, 분야별 서귀포시 예술인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읍면지역		동 지역	
		비중		비중		비중
전체	592	(100.0)	267	(100.0)	325	(100.0)
건축	5	(0.8)	5	(1.9)	0	(0.0)
국악	20	(3.4)	9	(3.4)	11	(3.4)
만화	13	(2.2)	3	(1.1)	10	(3.1)
무용	31	(5.2)	13	(4.9)	18	(5.5)
문학	98	(16.6)	40	(15.0)	58	(17.8)
미술	176	(29.7)	84	(31.5)	92	(28.3)
복수	51	(8.6)	25	(9.4)	26	(8.0)
사진	25	(4.2)	11	(4.1)	14	(4.3)
연극	13	(2.2)	8	(3.0)	5	(1.5)
연예	15	(2.5)	8	(3.0)	7	(2.2)
영화	27	(4.6)	14	(5.2)	13	(4.0)
음악	118	(19.9)	47	(17.6)	71	(21.8)

주 : 2024.12.31. 기준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부자료

- 성별, 연령별 서귀포시 예술인 현황 분석 결과, 40대 예술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서귀포시에 거주중인 예술인 중 40대 예술인은 1,854명으로 전체의 3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대 예술가 비중은 8.6%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성별에 따른 예술인의 연령대 분포 비교 분석 결과, 여성의 경우 50대 이하 예술인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고령 예술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여성 예술인의 경우 50대 이하 비중이 87.5%를 차지하는데 반해, 남성 예술인은 71.6%에 그치고 있음
 - 반면 남성 예술인의 경우 60대 이상 비중이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12.4%)의 2.3배에 달하는 수치임

〈표 II-23〉 성별, 연령별 서귀포시 예술인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남성		여성	
		비중		비중		비중
전체	592	(100.0)	253	(100.0)	339	(100.0)
20대	51	(8.6)	20	(7.9)	31	(9.1)
30대	125	(21.1)	49	(19.4)	76	(22.4)
40대	185	(31.3)	65	(25.7)	120	(35.4)
50대	117	(19.8)	47	(18.6)	70	(20.6)
60대	60	(10.1)	32	(12.6)	28	(8.3)
70대 이상	54	(9.1)	40	(15.8)	14	(4.1)

주 : 2024.12.31. 기준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부자료

2-3. 문화공간 자원

- 공공도서관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동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작은도서관 입지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제주도내 작은도서관 수는 총 146개로서, 이 중 61.0%가 제주시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주시 동 지역의 작은도서관 개소 수는 56개로서, 전체 작은도서관 수의 38.4%를 차지하고 있음
 -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입지해 있는 작은도서관 24개소 중 남원읍(11개소), 대정읍(8개소), 안덕면(8개소), 표선면(5개소) 등의 지역은 다수의 작은도서관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산읍에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은 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24〉 제주지역 도서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합계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비중		비중		비중
전체	168	(100.0)	22	(100.0)	146	(100.0)
제주시	100	(59.5)	11	(50.0)	89	(61.0)
읍면지역	38	(22.6)	5	(22.7)	33	(22.6)
동 지역	62	(36.9)	6	(27.3)	56	(38.4)
서귀포시	68	(40.5)	11	(50.0)	57	(39.0)
읍면지역	29	(17.3)	5	(22.7)	24	(16.4)
동 지역	39	(23.2)	6	(27.3)	33	(22.6)

주 : 2024.1.1. 기준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 2024년 기준 제주지역 박물관 현황 분석 결과, 국공립 및 대학에서 운영중인 박물관의 대다수가 제주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립 박물관의 경우 서귀포시에 다수가 입지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국공립 및 대학에서 운영중인 박물관의 경우 전체 18개소 중 15개소(83.3%)가 제주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경우 관련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사립 박물관의 경우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46.5%(20개소)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제주시 동 지역에는 관련 시설이 2개소(4.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됨

〈표 II-25〉 제주지역 박물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합계		국공립/대학		사립	
		비중		비중		비중
전체	61	(100.0)	18	(100.0)	43	(100.0)
제주시	30	(49.2)	15	(83.3)	15	(34.9)
읍면지역	18	(29.5)	5	(27.8)	13	(30.2)
동 지역	12	(19.7)	10	(55.6)	2	(4.7)
서귀포시	31	(50.8)	3	(16.7)	28	(65.1)
읍면지역	20	(32.8)	0	(0.0)	20	(46.5)
동 지역	11	(18.0)	3	(16.7)	8	(18.6)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4 전국문화시설총람

- 제주지역 미술관 현황 분석 결과, 공립 미술관의 경우 제주시 지역에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립 미술관의 경우 지역 간 유사한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내 공립 미술관은 제주시 읍면지역에 가장 많은 수(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립 미술관의 경우 서귀포시 읍면지역(5개소)에 가장 많은 수가 운영되고 있음

〈표 II-26〉 제주지역 미술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합계		공립		사립	
		비중		비중		비중
전체	18	(100.0)	4	(100.0)	14	(100.0)
제주시	10	(55.6)	3	(75.0)	7	(50.0)
읍면지역	6	(33.3)	2	(50.0)	4	(28.6)
동 지역	4	(22.2)	1	(25.0)	3	(21.4)
서귀포시	8	(44.4)	1	(25.0)	7	(50.0)
읍면지역	6	(33.3)	1	(25.0)	5	(35.7)
동 지역	2	(11.1)	0	(0.0)	2	(14.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4 전국문화시설총람

- 제주지역 공연장 현황 분석 결과, 제주시 동 지역 밀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읍면지역의 경우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에 더 많은 시설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제주도내 공연장의 52.9%가 제주시 동 지역에 입지해 있으며, 특히 공공 운영 공연장의 경우 제주시 동 지역 밀집도가 63.6%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민간 운영 공연장의 경우에도 제주시 동 지역 밀집도가 47.8%로 높게 나타났으나, 읍면지역 간 비교에서는 서귀포시(7개소)가 제주시(6개소)에 비해 많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II-27〉 제주지역 공연장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합계		공공		민간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개소	비중
전체	34	(100.0)	11	(100.0)	23	(100.0)
제주시	24	(70.6)	8	(72.7)	16	(69.6)
읍면지역	6	(17.6)	1	(9.1)	5	(21.7)
동 지역	18	(52.9)	7	(63.6)	11	(47.8)
서귀포시	10	(29.4)	3	(27.3)	7	(30.4)
읍면지역	6	(17.6)	0	(0.0)	6	(26.1)
동 지역	4	(11.8)	3	(27.3)	1	(4.3)

주 : 2021.11.30. 기준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 제주지역 문화의집 운영 현황 분석 결과, 읍면지역에 비해 동 지역에서 운영중인 시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 지역에서 운영중인 문화의집 및 청소년 문화의집 개소 수는 21개로서, 전체의 67.8%를 차지하는 반면, 서귀포시 읍면지역에는 청소년 문화의집만이 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의집은 전무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II-28〉 제주지역 문화의집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합계		문화의집		청소년 문화의집	
		비중		비중		비중
전체	31	(100.0)	6	(100.0)	25	(100.0)
제주시	16	(51.6)	3	(50.0)	13	(52.0)
읍면지역	6	(19.4)	1	(16.7)	5	(20.0)
동 지역	10	(32.3)	2	(33.3)	8	(32.0)
서귀포시	15	(48.4)	3	(50.0)	12	(48.0)
읍면지역	4	(12.9)	0	(0.0)	4	(16.0)
동 지역	11	(35.5)	3	(50.0)	8	(32.0)

주 : 2024.1.1. 기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 생활문화센터 및 문예회관, 문화원과 같은 시설의 입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 시설의 80%가 제주시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시 동 지역 밀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 입지 분석 결과, 제주시 동 지역에 70%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귀포시 내에는 단 1개소의 생활문화센터만 운영중인 것으로 분석됨
 - 문예회관 및 문화원의 경우 양 행정시 모두 동 지역에 집중되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지역에는 전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II-29〉 제주지역 기타 문화예술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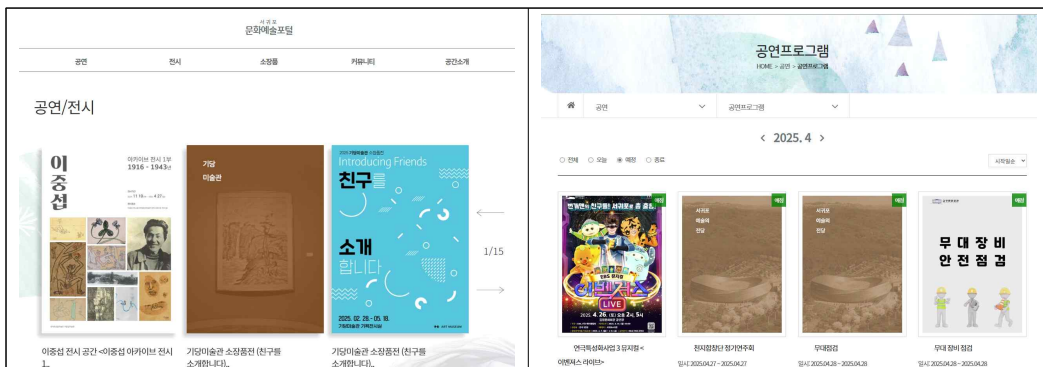
구분	합계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문화원	
		비중		비중		비중
전체	15	(100.0)	10	(100.0)	5	(100.0)
제주시	12	(80.0)	9	(90.0)	3	(60.0)
읍면지역	2	(13.3)	2	(20.0)	0	(0.0)
동 지역	10	(66.7)	7	(70.0)	3	(60.0)
서귀포시	3	(20.0)	1	(10.0)	2	(40.0)
읍면지역	0	(0.0)	0	(0.0)	0	(0.0)
동 지역	3	(20.0)	1	(10.0)	2	(40.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4 전국문화시설총람

2-4.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 및 포털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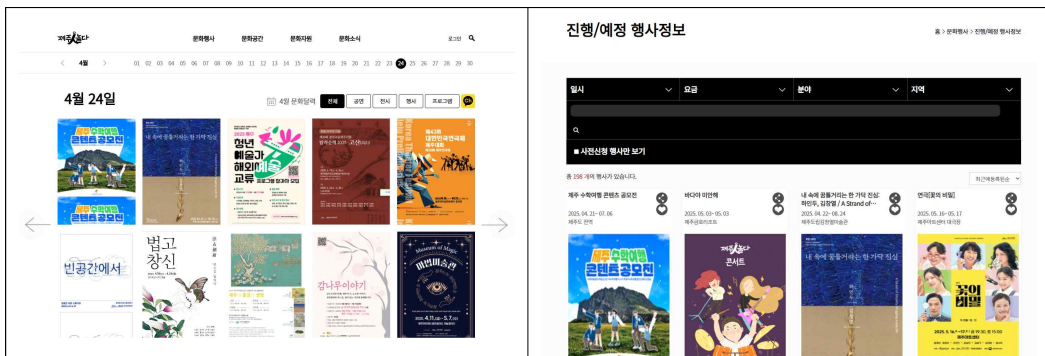
2-4-1 서귀포 문화예술포털

- 서귀포시 문화예술포털은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지역 문화예술 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시민과 예술인, 문화시설 간의 상호 연결을 통해 지역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축되었음
 - 공연, 전시, 축제, 강좌 등 서귀포시 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문화일정 캘린더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실시간 행사정보를 안내함
- 주요 문화시설(서귀포예술의전당, 김정문화회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소장품, 전시일정, 대관안내 기능 등을 포털을 통해 일괄 제공함
 - 각 기관별 행사정보, 운영시간, 위치, 연락처 등의 기본정보를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작품 및 문화재 소장품에 대한 온라인 열람 기능도 제공하여, 문화자산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함
-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예술인, 단체의 활동 기반 확대를 위한 온라인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향후에는 시민참여형 콘텐츠 확대, 문화예술 교육 플랫폼 기능, 창작자 등록 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해 플랫폼 기능을 확장 가능성 또한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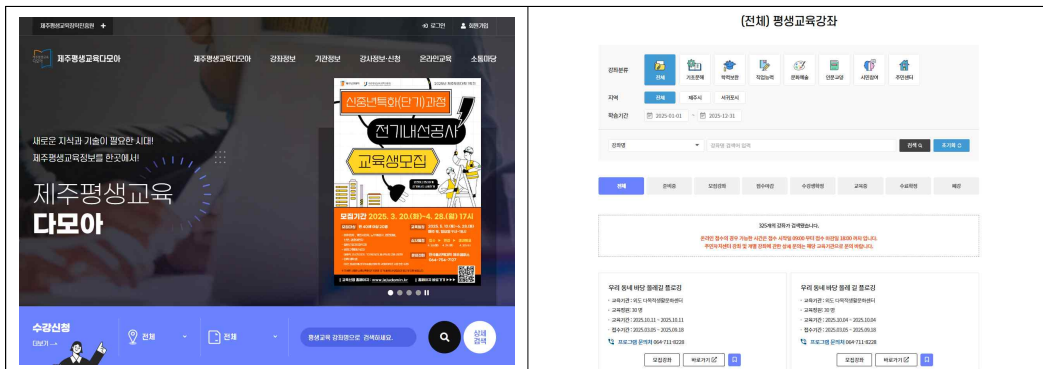
2-4-2 제주시놀다

- ‘제주시놀다’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도내 문화예술 정보의 통합 제공과 예술인·단체·공간 간의 연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축되었음
 - 공연, 전시, 축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문화달력 기능을 통해 월별 행사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
- 도내 문화시설 및 공간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과 예술인들이 문화공간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문화시설의 위치, 연락처, 이용 안내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공간 대관 관련 공지사항도 함께 안내함
- 제주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창작자와 시민 간의 연결을 도모하고, 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강화함
 - 예술인 및 단체의 프로필, 활동 분야, 연락처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협업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함
- 문화예술 관련 공지사항, 문화자료실 등을 통해 최신 소식과 자료를 제공하며, 시민과 예술인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유함
 - 공지사항에는 대관 안내, 공모사업, 행사 소식 등이 포함되며, 문화자료실에는 카드뉴스 형태의 주간 문화예술 정보가 제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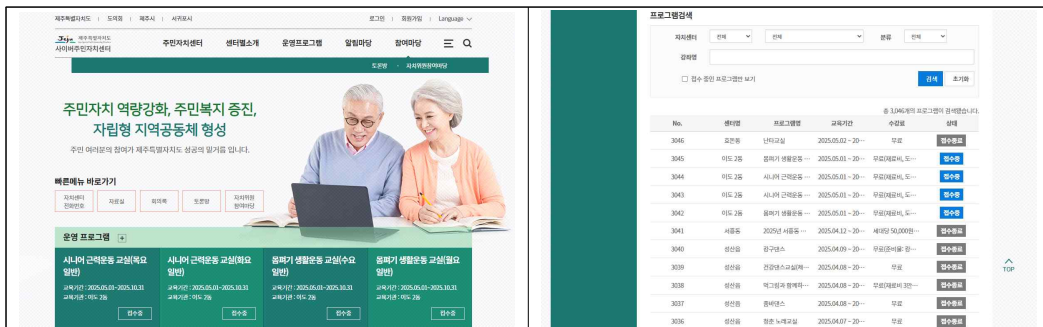
2-4-3 제주평생교육다모아

- ‘제주평생교육다모아’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평생학습 정보망으로서, 도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기관, 강사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도민의 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구축되었음
 - 제주 전역의 평생교육 수요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학습 기회를 탐색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의 정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
- 강좌 정보 통합제공 기능을 중심으로, 도내 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정보를 분야별, 지역별, 대상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강좌별 상세 정보(교육기간, 운영기관, 접수방법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주도민 대학, 자격증 취득과정, 문해교육, 디지털 기초교육 등 정책연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비대면 학습 확대를 위해 온라인 강좌 콘텐츠를 별도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자격 취득, IT 활용, 인문교양, 직무능력 향상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GSEEK(경기도 평생학습포털)와 연계된 고품질 외부 강좌를 도민에게 무료 제공함
- 도내 평생교육 강사와 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공급자 간 매칭 기반의 학습 자원망 구축을 지향함
 - 강사풀을 구축, 운영을 통해 학습 주체 간 연결을 도모하며, 도내 평생교육기관의 정보(위치, 운영현황 등) 제공을 통해 공간 이용 접근성을 제고함



2-4-4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주민자치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주민자치센터는 도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정보를 통합하여 온라인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된 홈페이지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서는 43개 읍면동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현황 및 업무 등에 대한 내용과 함께,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로그인 아이디로 접속 시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정보획득 및 강의신청, 신청된 프로그램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 제주도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모든 강의에 대한 정보(일시, 장소, 주제, 모집인원 등)를 제공하며, 희망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좌가 있는 경우 온라인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함
 - 2024년 도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총 623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이 중 288개의 프로그램이 서귀포시 관내에서 개설, 운영되었음



2-4-5 제주문화중개소

- 제주문화중개소는 제주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자원연계형 플랫폼으로서, 제주지역 내 문화여가서비스 공급자, 수요자, 공간을 매칭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여가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 2018년부터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시 등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나, 2023년부터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서 제주도 전역으로 확장 운영되고 있음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간-강사-수요자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강의수요 정보 제공, 강의 매칭, 공간DB 제공, 강사풀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강사 - 주민 - 공간을 매칭하여 지역수요 맞춤형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인구감소지역 및 문화여가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대상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함
 - 강사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제주도내 강사들과 지역 내 문화여가 수요를 매칭하는 형태로 강사대상 서비스를 지원함
 - 강사지원시스템은 제주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 시 원활한 강사 수급과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문강사 DB로서, 지역 내 분야별, 등급별 전문강사 풀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지역 내 강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을 상시모집하거나 마을을 통해 추천받는 형태로 공간 DB를 구축하고, 낙후지역을 대상으로도 원활하게 강사 수급이 가능하도록 전문강사 DB를 구축·운영함



Ⅲ. 서귀포시 주민의 문화예술 만족도 및 수요 분석

1. 문화예술 환경 및 서비스 만족도 분석

1-1. 자료분석 개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서귀포시 지역 문화예술 정책 환경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인 바,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원자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귀포시 주민의 문화예술 만족도 및 수요를 분석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사회상에 대한 도민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23년 사회조사는 14개 생활영역 200개 사회지표 중 통계와 행정자료로 수집이 불가능한 79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문화와 여가’ 항목에 포함된 사회조사 지표는 15개 항목으로 설정되었음
-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련 항목 중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항목만을 도출하여 문화와 여가 항목에 포함되는 15개 지표 중 5개 지표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만족도, 문화여가시설 접근성, 문화활동(관람횟수),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환경 개선사항 등의 항목이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지역, 이주여부, 연령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세분화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음

〈표 III-1〉 제주의 사회조사 ‘문화와 여가’ 영역 지표 중 활용된 지표 목록

연번	조사항목	활용여부	연번	조사항목	활용여부
1	여가시간 활용	미활용	9	문화환경 만족도	활용
2	주 평균 여가시간	미활용	10	문화환경 개선사항	활용
3	여가활동 저조 이유	미활용	11	지역축제 참여 여부	미활용
4	여가활동 만족도	활용	12	지역축제 선호도	미활용
5	문화여가시설 접근성	활용	13	인터넷 이용	미활용
6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	미활용	14	정보 습득 경로	미활용
7	여행 경험 및 횟수	미활용	15	모바일 기기 활용 용도	미활용
8	문화활동(관람횟수)	활용			

1-2. 자료분석 결과

1-2-1 여가활동 만족도 및 개선사항

- 서귀포시 지역 간 여가활동 만족도 비교 분석 결과, 생활환경 만족도 및 문화여가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동 지역에 높는데 반해, 전반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읍면지역이 높게 나타남
 -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점수는 2.91점으로서, 동 지역 (2.8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여가활동 만족도와 관련된 모든 항목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보통(3점) 이하의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가활동 만족도에 대한 서귀포시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이 낮은 수준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표 III-2〉 서귀포시 지역별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읍면지역	동 지역
문화여가시설(접근성과 충분정도)	2.82	2.88
전반적인 여가활동	2.91	2.85

주 : 각 셀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평균 값임

출처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이주여부를 기준으로 서귀포시 주민의 여가활동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에 비해 선주민의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에 거주중인 선주민들의 여가활동 만족도 평균 점수는 2.92점으로서, 이주민(2.69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 항목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설 접근성과 충분정도에 있어서는 동 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이 동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주여부와 관계 없이 접근성과 충분정도 항목에서는 동 지역(평균 2.82점)이 읍면지역(평균 2.73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관련 시설들이 동 지역에 밀집되면서 나타난 결과임

〈표 III-3〉 이주여부에 따른 서귀포시 지역별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선주민		이주민	
	읍면지역	동 지역	읍면지역	동 지역
문화여가시설(접근성과 충분정도)	2.88	2.95	2.58	2.68
전반적인 여가활동	2.93	2.92	2.83	2.65

주 : 각 셀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평균 값임

출처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연령대에 따른 지역별 문화여가시설 접근성과 충분정도 분석 결과, 동 지역 청소년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 지역 노년층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동 지역 청소년의 문화여가시설 접근성 및 충분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2.37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 지역에 거주하는 노년층의 만족도는 3.14점으로 높게 나타남
 - 청소년의 경우 동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외 다른 연령층의 경우 읍면지역에 비해 동 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연령대에 따른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낮은 연령대일수록 동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높은 연령대일수록 동 지역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청소년과 청년 계층의 경우 동 지역(청소년 2.37점, 청년 2.70점)에 비해 읍면지역(청소년 3.11점, 청년 2.87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중장년과 노년 계층의 경우 읍면지역(중장년 2.83점, 노년 2.98점)에 비해 동 지역(중장년 2.84점, 노년 3.08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남

〈표 III-4〉 연령대에 따른 서귀포시 지역별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문화여가시설(접근성과 충분정도)	읍면지역	2.80	2.64	2.75	2.98
	동 지역	2.37	2.71	2.86	3.14
전반적인 여가활동	읍면지역	3.11	2.87	2.83	2.98
	동 지역	2.37	2.70	2.84	3.08

주 : 각 셀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평균 값임

출처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서귀포시 문화여가 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 분석 결과, 문화여가시설 및 공간확충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여가시설 및 공간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45.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와 미디어 플랫폼 개발(21.8%), 공연 형식의 다양화(14.4%)에 대한 수요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지역별 수요 분석 결과, 읍면지역의 경우 동 지역에 비해 시설 및 공간확충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 지역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와 미디어 플랫폼 개발, 공연형식 다양화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읍면지역 주민들의 67.8%가 시설 및 공간확충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동 지역의 경우 시설 및 공간확충에 대한 수요가 37.2%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다만 동 지역 주민들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와 미디어 플랫폼 개발, 공연 형식의 다양화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이는 등, 읍면지역 주민들에 비해 문화여가 콘텐츠 향유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Ⅲ-5〉 서귀포시 지역별 우선 개선 필요 사항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읍면지역		동 지역	
		비중		비중		비중
전체	43,320	(100.0)	11,770	(100.0)	31,549	(100.0)
문화여가시설 및 공간 확충	19,709	(45.5)	7,985	(67.8)	11,725	(37.2)
온라인 콘텐츠와 미디어 플랫폼 개발	9,453	(21.8)	348	(3.0)	9,104	(28.9)
문화 향유 비용	4,196	(9.7)	836	(7.1)	3,360	(10.7)
홍보 강화	3,333	(7.7)	1,459	(12.4)	1,874	(5.9)
공연 형식의 다양화(야외공연 등)	6,245	(14.4)	968	(8.2)	5,277	(16.7)
기타	383	(0.9)	175	(1.5)	209	(0.7)

주 : 각 셀에 표기된 값은 가구원별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출처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1-2-2 문화환경 만족도

- 서귀포시 지역별 문화환경 만족도 비교 분석 결과, 읍면지역이 동 지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구조적 특성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문화환경 만족도 평균 점수는 3.00점으로서, 동 지역(2.86 점)에 비해 0.14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읍면지역의 경우 인구구조적 특성 상 고령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활동에 대한 낮은 관심도 및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 점수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실제 문화활동 참여 횟수는 읍면지역에 비해 동 지역이 낮는데 반해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읍면지역 거주자들이 동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문화환경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음
- 항목별 만족도 비교 분석 결과,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소요비용과 전반적인 문화환경 항목으로서, 이는 동 지역의 수요에 반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문제로 해석이 가능함
- 동 지역의 경우 수요나 관심도는 읍면지역에 비해 높는데 반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요비용 측면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따라서 전반적인 문화환경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III-6〉 서귀포시 지역별 문화 환경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읍면지역	동 지역
문화여가시설	3.12	3.09
문화프로그램(오프라인)	2.95	2.97
문화프로그램(온라인)	2.98	2.90
소요 비용	2.94	2.62
전반적인 문화환경	3.01	2.72

주 : 각 셀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평균 값임

출처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이주여부에 따른 서귀포시 문화환경 만족도 분석 결과, 이주민에 비해 선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선주민의 문화환경 만족도 평균 점수는 3.00점으로서 이주민(2.72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항목별 분석 결과 소요비용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예술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낮은 접근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 읍면지역 이주민의 경우 선주민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는데 반해, 지역 내에 관련 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여가활동 만족도와 비교 분석 결과, 이주민의 문화환경 및 여가활동 만족도는 선주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문화환경 만족도에 비해 여가활동 만족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이주민의 문화환경 만족도 수준은 2.72점, 여가활동 만족도 점수는 2.69점으로서, 선주민(문화환경 만족도 3.00점, 여가활동 만족도 2.91점)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Ⅲ-7〉 이주여부 따른 서귀포시 문화환경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선주민		이주민	
	읍면지역	동 지역	읍면지역	동 지역
문화여가시설	3.23	3.13	2.75	2.98
문화프로그램(오프라인)	3.06	2.99	2.64	2.91
문화프로그램(온라인)	3.09	2.91	2.67	2.87
소요 비용	3.01	2.69	2.72	2.44
전반적인 문화환경	3.13	2.77	2.61	2.56

주 : 각 셀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평균 값임

출처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연령대별 문화환경 만족도 분석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년층의 경우 소요비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청소년 및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
- 문화환경 만족도와 관련된 5개 조사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소요비용'인 것으로 분석됨

- 소요비용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보통(3점) 이하의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2.45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표 III-8〉 연령대에 따른 문화환경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문화여가시설	2.85	2.96	3.03	3.39
문화프로그램(오프라인)	2.79	2.80	2.93	3.23
문화프로그램(온라인)	2.87	2.81	2.91	3.10
소요 비용	2.45	2.63	2.72	2.93
전반적인 문화환경	2.59	2.66	2.80	3.08

주 : 각 셀의 값은 부정(1점)~긍정(5점)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평균 값임

출처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1-2-3 문화활동 참여 횟수

- 지역별 연평균 문화활동 횟수 비교 분석 결과, 특정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동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문화활동 횟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전시회 관람, 박물관, 공연장 관람, 영화관람, 스포츠경기 관람 등 평가항목별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동 지역(0.51회)에 비해 읍면지역(0.37회)의 문화활동 횟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극장에서 영화관람 항목의 경우 두 지역간 격차가 월 0.41회 수준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영화관이 동 지역에 밀집되면서 발생한 결과인 것으로 보여짐

〈표 Ⅲ-9〉 제주지역별 연평균 문화활동 횟수

(단위 : 회)

구분	읍면지역	동 지역
전시회 관람(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0.26	0.33
박물관(유물전시회 등 포함)	0.23	0.33
공연장 관람(음악회, 연극, 콘서트 등)	0.23	0.40
극장에서 영화 관람	0.92	1.33
스포츠경기 관람	0.19	0.15

출처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이주여부를 기준으로 서귀포시 주민들의 연평균 문화활동 횟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주민이 선주민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서귀포시에 거주중인 이주민의 연간 문화활동 참여횟수 평균치는 0.78회로서, 선주민(0.34회)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주여부에 따른 항목별 항목별 격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선주민과 이주민 간에 가장 큰 참여 격차를 보이는 항목은 ‘극장에서 영화 관람’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서귀포시에서 거주중인 이주민의 평균 영화관람 횟수는 동 지역 2.22회, 읍면지역 1.36회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주민(동 지역 1.03회, 읍면지역 0.81회)에 비해 각각 0.55회, 1.19회 높은 수치임

〈표 Ⅲ-10〉 이주여부 따른 평균 연간 문화활동 횟수

(단위 : 회)

구분	선주민		이주민	
	읍면지역	동 지역	읍면지역	동 지역
전시회 관람(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0.15	0.23	0.68	0.62
박물관(유물전시회 등 포함)	0.16	0.22	0.54	0.67
공연장 관람(음악회, 연극, 콘서트 등)	0.17	0.28	0.49	0.75
극장에서 영화 관람	0.81	1.03	1.36	2.22
스포츠경기 관람	0.14	0.17	0.38	0.12

출처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연령대별 평균 연간 문화활동 횟수 비교 분석 결과, 청소년 계층의 문화활동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노년층의 경우 문화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전시회 관람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청소년 계층이 가장 높은 빈도(평균 1.14회)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노년층의 경우 연간 문화활동 참여 횟수는 0.09회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스포츠경기 관람의 경우 노년층의 연간 참여횟수가 0.02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의 참여가 거의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표 III-11〉 연령대에 따른 평균 연간 문화활동 횟수

(단위 : 회)

구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평균	1.14	0.79	0.46	0.09
전시회 관람(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0.35	0.50	0.37	0.07
박물관(유물전시회 등 포함)	0.49	0.44	0.34	0.09
공연장 관람(음악회, 연극, 콘서트 등)	0.71	0.58	0.34	0.08
극장에서 영화 관람	3.47	2.13	1.12	0.18
스포츠경기 관람	0.68	0.32	0.15	0.02

출처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1-2-4 문화여가시설 접근성

-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수요 분석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은 문화센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시설, 영화관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수요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2.2%가 접근성 개선을 위해 확충되어야 할 문화시설로 '문화센터'를 선택했으며, 스포츠시설(25.9%), 영화관(20.7%)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문화여가시설 수요 분석 결과, 읍면지역의 경우 동 지역에 비해 영화관의 수요가 높게 나타난 반면, 동 지역의 경우 공연장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영화관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인 생활 문화시설인 영화관의 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서귀포시 동 지역의 경우 운영중인 민간 공연장이 매우 소수에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서, 다수의 주민들이 서비스 향유를 위해 제주시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여짐

〈표 III-12〉 서귀포시 지역별 문화여가시설 수요 (1순위+2순위)

(단위 : 명, %)

구분	합계		읍면지역		동 지역	
		비중		비중		비중
전체	317,851	(100.0)	140,603	(100.0)	177,248	(100.0)
영화관	65,768	(20.7)	31,262	(22.2)	34,507	(19.5)
문화센터	102,249	(32.2)	44,942	(32.0)	57,307	(32.3)
공연장	38,994	(12.3)	12,491	(8.9)	26,503	(15.0)
박물관/미술관	24,014	(7.6)	11,318	(8.0)	12,695	(7.2)
스포츠시설	82,437	(25.9)	38,020	(27.0)	44,417	(25.1)
기타	4,389	(1.4)	2,569	(1.8)	1,819	(1.0)

주 : 각 셀에 표기된 값은 가구원별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출처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서귀포시 지역별 문화여가시설 수요 비교 분석 결과, 모든 분석 집단에서 동일하게 문화센터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거주지역 및 이주 여부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분석집단에서 문화센터에 대한 수요가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주여부별 분석 결과, 선주민의 경우 문화센터 다음으로 스포츠시설에 대한 설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민의 경우에는 문화센터에 이어 영화관 설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선주민의 경우 문화센터 설치에 대한 수요(읍면지역 32.1%, 동 지역 33.0%)에 이어, 스포츠시설(읍면지역 28.0%, 동 지역 26.7%)에 대한 수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이주민의 경우 문화센터 설치에 대한 수요(읍면지역 31.5%, 동 지역 30.4%)에 이어, 영화관(읍면지역 23.9%, 동 지역 23.8%)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등 수요 측면에서 선주민과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I-13〉 서귀포시 지역별 문화여가시설 수요 (1순위+2순위)

(단위 : 명, %)

구분	선주민		이주민	
	읍면지역	동 지역	읍면지역	동 지역
전체	112,252 (100.0)	132,790 (100.0)	28,351 (100.0)	44,458 (100.0)
영화관	24,479 (21.8)	23,932 (18.0)	6,782 (23.9)	10,575 (23.8)
문화센터	36,006 (32.1)	43,809 (33.0)	8,936 (31.5)	13,498 (30.4)
공연장	9,834 (8.8)	18,565 (14.0)	2,657 (9.4)	7,939 (17.9)
박물관/미술관	8,590 (7.7)	9,655 (7.3)	2,729 (9.6)	3,041 (6.8)
스포츠시설	31,434 (28.0)	35,416 (26.7)	6,586 (23.2)	9,000 (20.2)
기타	1,909 (1.7)	1,414 (1.1)	660 (2.3)	673 (1.5)

주 : 각 셀에 표기된 값은 가구원별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출처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서귀포시 연령대별 문화여가시설 수요 분석 결과, 저 연령대에서는 영화관, 공연장 등 관람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고 연령대에서는 문화센터, 스포츠시설 등 참여형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청소년 계층의 경우 영화관에 대한 수요(40.7%)가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노년층의 경우 문화센터에 대한 수요(37.0%)가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I-14〉 서귀포시 연령대별 문화여가시설 수요 (1순위+2순위)

(단위 : 명, %)

구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체	16,111	(100.0)	71,644	(100.0)	123,351	(100.0)	106,745	(100.0)
영화관	6,553	(40.7)	17,552	(24.5)	24,118	(19.6)	17,546	(16.4)
문화센터	2,737	(17.0)	19,993	(27.9)	40,040	(32.5)	39,480	(37.0)
공연장	2,640	(16.4)	9,637	(13.5)	14,540	(11.8)	12,177	(11.4)
박물관/미술관	930	(5.8)	5,378	(7.5)	9,282	(7.5)	8,423	(7.9)
스포츠시설	3,115	(19.3)	18,647	(26.0)	34,014	(27.6)	26,663	(25.0)
기타	1,218	(7.6)	577	(0.8)	1,358	(1.1)	2,456	(2.3)

주 : 각 셀에 표기된 값은 가구원별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출처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1-2-5 문화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도

- 서귀포시 주민들의 전반적인 문화환경 시설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률⁴⁾을 분석한 결과, 동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모든 항목에서 비이용 또는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도와 관련하여 동 지역 응답자들의 비이용/잘모름 응답 비중은 10~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읍면지역의 경우 30~50% 수준으로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온라인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읍면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이 이용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읍면지역에 거주중인 프로그램 수요자 다수가 온라인 프로그램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에 해당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여짐

4) 인지도 및 활용률은 각 항목별 설문 응답자 중 '잘 모름/비이용'을 선택한 응답값을 토대로 도출하였음

〈표 III-15〉 서귀포시 문화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도

(단위 : %)

구분	읍면지역	동 지역
문화여가시설	29.5	10.7
문화프로그램(오프라인)	43.7	15.9
문화프로그램(온라인)	52.8	23.6
문화소요비용	35.8	15.0
전반적인 문화환경	33.2	11.7

출처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이주여부에 따른 서귀포시 주민들의 전반적인 문화환경 시설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 분석 결과, 선주민에 비해 이주민의 이용률 및 인지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문화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도와 관련하여 읍면지역 선주민의 경우 대체적으로 30~50% 이상의 응답자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모른다고 응답한데 반해, 이주민의 경우 10~30% 수준의 응답자들만이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 특히 동 지역에 거주중인 이주민의 경우 타 응답자 집단에 비해 프로그램 및 시설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III-16〉 이주여부별 서귀포시 문화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도

(단위 : %)

구분	선주민		이주민	
	읍면지역	동 지역	읍면지역	동 지역
문화여가시설	33.1	12.2	14.6	6.5
문화프로그램(오프라인)	47.3	18.4	29.4	8.2
문화프로그램(온라인)	56.5	26.7	39.5	14.4
문화소요비용	38.8	17.3	23.7	8.2
전반적인 문화환경	36.0	13.5	21.9	6.5

출처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 연령대별로 서귀포시 주민의 전반적인 문화환경 시설 인지도 및 활용률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청년 계층의 인지도, 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층의 경우 가장 낮은 경향을 보임
 - 동 지역 거주중인 청년계층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90% 이상의 응답자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읍면지역 고령층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이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없거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연령대에 따라서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읍면지역과 동 지역 간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률, 인지도 격차는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지역 및 연령대를 고려한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이 낮은 읍면지역의 특성은 읍면 지역 내 모든 연령대 주민들의 문화접근성을 낮추고 있는 상황임

〈표 Ⅲ-17〉 연령대별 서귀포시 문화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도

(단위 : %)

구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읍면지역	동 지역	읍면지역	동 지역	읍면지역	동 지역	읍면지역	동 지역
문화여가시설	26.4	8.3	12.7	2.6	20.9	9.1	47.0	19.6
문화프로그램 (오프라인)	36.7	11.0	28.5	3.6	35.6	11.1	60.6	32.4
문화프로그램 (온라인)	36.7	13.8	37.5	8.0	43.9	18.0	71.4	44.8
소요 비용	26.4	8.3	17.2	5.1	29.7	10.8	52.6	29.2
전반적인 문화환경	26.4	8.3	15.5	2.6	25.3	9.1	51.0	22.8

출처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2.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수요 분석

2-1. 조사분석 개요

- 본 연구에서는 서귀포시 주민들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수요 분석을 위해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실시한 서귀포시 문화예술 관련 주요 행위자 별 집단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함
- 서귀포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수요 분석을 위해 추진된 이 조사의 개요는 다음 <표 III-00>와 같음

<표 III-18> 면접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 서귀포시 문화예술 관계자 대상 정책 수요 및 의견 도출
조사시기	· 2025년 5월 중
조사횟수	· 총 3회 (각 집단별 1회 진행)
조사대상	· 지역 내에서 활동중인 예술가 · 문화예술 기획자, 강사, 전시 크리에이터 등 문화매개자 · 서귀포시에서 거주중이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향유자

2-1-1 조사분석 대상

- 본 연구에서는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는 바, 문화예술 정책이 수립되어 제공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안에 포함된 다양한 행위자 중 공급자, 매개자, 수요자를 조사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일련의 과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① 서귀포시 지역 내에서 활동중인 예술가, ② 문화예술 기획자, 전시 크리에이터 등 공급자와 수요자 간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매개자, ③ 서귀포시에 거주중이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이 분석 대상으로 설정되었음

- ‘예술가’의 경우 지역내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총 5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음
- ‘문화매개자’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인 예술가와 와 수요자인 지역주민 간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총 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음
- ‘향유자’는 서귀포시에 거주중이면서 문화예술 정책의 프로그램의 고객이 되는 실질적인 수요자로서, 총 14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음
 - 문화예술 콘텐츠의 소비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술가 및 문화매개자의 경우 소비자보다는 공급자의 측면에 더욱 가까운 특성을 보임
 - 본 연구는 문화예술 정책의 효율성을 분석함에 있어 관련 콘텐츠의 수요와 공급라는 측면에서 공급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소비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바,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예술가와 문화매개자 집단의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향유자 그룹의 인터뷰 대상을 14명으로 설정하였음

〈표 Ⅲ-19〉 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집단	참여자 구분	성별	참여자 특성
예술가 그룹	예술가 ①	여	연극
	예술가 ②	여	무용
	예술가 ③	남	음악
	예술가 ④	여	무용
	예술가 ⑤	남	시각(조각)
문화매개자 그룹	매개자 ①	여	예술교육활동가
	매개자 ②	여	예술교육활동가
	매개자 ③	남	지역활동가/기획자
	매개자 ④	여	기획자
	매개자 ⑤	여	지역활동가
	매개자 ⑥	여	기획자/문화행정가
향유그룹	향유자 ①	남	읍면지역 거주
	향유자 ②	여	동 지역 거주
	향유자 ③	여	동 지역 거주
	향유자 ④	여	읍면지역 거주
	향유자 ⑤	남	동 지역 거주
	향유자 ⑥	남	동 지역 거주
	향유자 ⑦	여	동 지역 거주
	향유자 ⑧	여	동 지역 거주
	향유자 ⑨	남	동 지역 거주
	향유자 ⑩	여	동 지역 거주
	향유자 ⑪	여	동 지역 거주
	향유자 ⑫	남	동 지역 거주
	향유자 ⑬	여	동 지역 거주
	향유자 ⑭	여	동 지역 거주

2-1-2 조사분석 내용

-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서귀포시 내 각 집단별로 실시한 주요 행위자 대상 면접조사는 공통문항과 개별문항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음
 - 공통문항의 경우 현재 서귀포시에서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 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 및 주요 기능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
 - 개별문항의 경우 각 집단별로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각 집단별 의견, 수요에 기반한 정책 추진 여부, 프로그램이나 공간 이용 시 발생하는 민원이나 수요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

〈표 III-20〉 면접조사 항목

조사대상		조사내용
공통		· 서귀포시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는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우선순위 · 문화예술정책 효율화를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
개별	예술가	· 서귀포시 예술창작 지원정책에 대한 예술가들의 의견 · 서귀포시 예술가들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
	문화매개자	· 예술가와 주민 간 연결 방식에 대한 의견 · 매개자 관점에서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문제점 인식
	항유자 (지역주민)	·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문제점 인식 · 서귀포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대한 수요

2-2. 조사 결과

2-2-1 예술가

□ 서귀포시 예술창작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 (서귀포시 차원의 문화예술 정책 부족) 조사에 참여한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예술창작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예술가들은 대체적으로 서귀포시 차원의 예술정책 및 지원사업들의 존재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공고가 나오면 그것에 열심히 공고를 준비해서 한 해 보내고 그것이 사실 전부인 것이지, 서귀포와 관련된 건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중략)… 그냥 정말 진짜 박하조 되게. 서귀포에는 정말 뭐가 없어요. 저도 하다못해 재단의 어떤 그런 지원사업이라든지 어떤 거 할 때 서귀포에 와서 과연 내가 뭘 한 게 뭐가 있을까 진짜. 시각예술가로서 전시를 한번 하더라도 제주시에서 했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술가 ⑤)

“서귀포시에서 예술창작. 저는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의 어떤 정책들과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한 경험은 솔직히 없어요. 오히려 제주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2020년도인가부터 해서 처음 사업들을 꾸준히 올해도 감사하게도 지원이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술가 ②)

-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 부족) 조사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대부분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이 생활문화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인식함
 - 즉, 문화예술을 지원함에 있어서 정책의 지원 대상이 문화예술 콘텐츠의 소비자인 지역주민일수도, 콘텐츠의 공급자인 예술가 일수도 있지만, 현재 지원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술가보다는 소비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술인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나 전문성이 떨어져도 누군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술가들이 순수예술로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오는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것들. 이런 것들이 지원사업에 이렇게 좀 포커스가 나눠졌으면 좋겠는데 뭉뚱그려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작 진짜 전공을 한 예술가보다는 지역민들이 그냥 어디에서 배우고 오셔서 누군가 뭐 도움을 받아서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다 하니깐. 그래서 지원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술가 ④)

- 이러한 경향은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특성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제주다움”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정책의 추진이 반대로 예술가의 예술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함

“지역색을 굉장히 너무 강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지역색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먼저 아티스트들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파운데이션이 잘 깔려 있는 상태에서 뒷받침돼야 그 지역색도 누군가에게 어필할 수가 있고 더 설득력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술가 ③)

“서귀포시에서 한동안 문화정책으로 내세웠던 게 노지문화였어요. 근데 그 노지문화라는 게 솔직히 너무 포괄적이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노지문화라는 거에 각 마을마다의 마을문화를 발전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 정책을 펼쳤는데 정작 예술가들은 그 노지문화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펼쳐서 그거를 예술성과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뭐라지? 구체적인 뭐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멘토, 멘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노지문화가 뭐지?’ 그리고 대부분 서귀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제주도의 진짜 문화. 예전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구전문화들은 듣고 이렇게 와전된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을 지원사업으로 내었을 때도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역지로 끼워맞추다 보니까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포괄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술가 ④)

- (지원사업 발굴 시 예술가 관점에서의 고려 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술가들은 제주지역의 작은 문화예술 시장의 특성 때문에 행정사업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문화예술 지원사업들을 일종의 ‘계륵’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
- 즉, 예술가들은 행정 사업이 예술활동의 지속을 위한 필수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방식이 예술가 개인의 방향성과 충돌하면서, 예산 의존과 창작 자율성이라는 두 요소 간의 내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예산을 받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예술적인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은 약간 인공호흡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술인들이 계속 나의 그냥 예술적 활동을 연장하기 위해 그냥 받고 있는 거지,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추구하던 것은 아니다라고 사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공연을 다니다 보면. 그렇다고 이걸 떼버리면 이제 예술가로서, 전업 예술가로서 살아갈 일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니까.” (예술가 ③)

□ 예술가 관점에서의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 수요

- (예술인의 수요에 맞지 않은 문화예술 정책) 대체적으로 예술인들은 현재 서귀포시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주민들의 수요’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예술인의 수요’라는 관점에서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서귀포시에서 되게 큰돈을 들여서 문화정책사업을 한다고 뉴스가 떴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중섭거리에 대한 특화사업이라든지, 새연교라든지 서귀포 부둣가를 살리기 위한 이런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 어디 무슨 문화시설을, 칠십리 문화 그 야외공연장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사실 이걸 예술가랑 상관없잖아요. …(중략)… 문화정책이라고 굉장히 큰 액수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정작 우리 예술인들은 거기에 멘토가 된다든지 어디의 무슨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예술가 ④)

“일단 음악뿐만이 아니라 아직 서귀포가 문화에 대한 정책이 예술인보다는 일단 일반 시민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조금 대중화를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술가 ③)

○ **(행정과 예술가 간 양방향 상호작용)**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는 공급자(행정 또는 관련 단체)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언급한 의견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특정 예술가의 경우에는 정책의 공급자와 수요자인 예술인 간의 관계가 단순히 예산을 지원해주고 받는 일방적인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문은 얻으시는데 그걸 실제로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또한 그게 저희 삶을 들여서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가 시간을 들여가면서 저희한테 쌓여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함께 해서 무언가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희가 뭔가 이걸 수용하기도 하고 좀 더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이런 교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항상 끝에 가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술가 ①)

○ **(예술인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제주시의 경우와 달리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문화예술재단과 같이 예술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자원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 간의 네트워크도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술가들 간 협업에 있어서 지속적인 한계를 경험하고 있음

“(사람이 모자라는 경우에 객원 제도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고려되는데) 그건 개인 인맥에서 해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부분은 다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은 각 학연, 지연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만 해도. 육지라고 표현을 하죠. 육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무용수들을 초빙을 해서 공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주 안에서 생활무용협회. 그러니까 생활무용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오다 보니 저희가 이제 아까 선생님도 제자들을 육성하고 양성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을 불러들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이루어지는 게 80% 이상이지 않을까. 그냥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술인 ④)

○ **(예술가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지역 내에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수요 측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공연예술의 특성 상 공연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준비하는 연습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서귀포시의 경우 완성된 공연을 노출하기 위한 공간은 곳곳에 존재하고 있으나, 오히려 연습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즉, 단순히 공연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연습이나 공유오피스 등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연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간이 다 흔적들이 남겨거든요. 그게 저는 예술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이게 파손이라고 하니까. 파손되면 물어주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정말 작업을 하고 뭐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중략)… 연습실도 사실 제주에는 많이 없거든요.” (예술가 ①)

“저희는 공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수요가 많이 없어요. 표선 시골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하시는 분 구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고 막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시내에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으면 행정이나 사무 일 필요할 때마다 왔다갔다 하면 되니까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술가 ①)

○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 강화)** 전문성이 있는 순수예술 분야의 지원을 통해 독특한 색을 가진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곧 효율적인 지역정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저는 솔직히 여기서 하는 정책으로 만들어진 공연들을 보면 예술인으로서 예술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설득력이 많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좀 더 높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도 봤을 때 거기서 어떤 영감을 얻고 재미가 있는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보기가 조금 힘든 경우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물론 대중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예술을 대중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술가 ③)

“서귀포시에서 많은 지원사업들이라든지 정책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게 되었을 때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수예술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뒤쳐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한동안 문화정책으로 내 세웠던 게 노지문화였어요 …(중략)…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을 지원사업으로 내었을 때도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억지로 끼워맞추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술가 ④)

□ 전담조직의 필요성 및 역할

- (서귀포시 문화예술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예술인들은 대체적으로 서귀포시 지역이 제주도 지역에 비해 활동에 열악한 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 개선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음

“본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주도 가면 제주문화예술재단 있잖아요. 궁금하면 거기로 가서 물어보는. 서귀포에도 그런 지점이 하나 있었으면…” (예술가 ⑤)

“(서귀포시에도) 예술인들이랑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어떠한 행정적인 보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술가 ①)

- 전담조직이 설치될 경우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역할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 (예술인 간, 예술인과 주민 간 네트워크 강화) 전담조직의 역할과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인 키워드는 ‘연결’이었으며, 앞서 수요조사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다수의 예술인들은 예술인과 예술인 간의 네트워크 구축, 예술인과 주민 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전담조직이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만약에 거점이 생긴다면 그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단체들을 알게 됐거든요. 진짜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 않으면 누가 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협동조합도 보면 네트워킹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명단이 쪽 있어요. 그다음에 이 단체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매년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상반기, 하반기로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니면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서귀포시만 예술단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서 예술단체, 서귀포시 예술단체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또 이쪽 하시는 분은 건너 건너면 누구와 작업했는지 뭐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교류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가 ①)

- **(정보획득을 위한 중간 채널의 역할 수행)** 서귀포시 내에서 거주하는 예술인들, 특히 이주 예술인의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메일링하거나 홍보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채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저는 음악 위주로 정책들을 많이 보고 했는데 사실 여기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서귀포 자체 내에서 정확히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도 좀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저희가. 물론 찾아보긴 하지만 그게 시기를 놓치면 이미 지나갔거나 아직 나오기 전 상태. 그게 언제 나온다고 뭐 매년 같은 시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매일 들어가서 찾아볼 수도 없는 일이니까.” (예술가 ③)

“만약에 거점이 생긴다면 그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단체들을 알게 됐거든요. 진짜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 않으면 누가 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략)…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들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매년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상반기, 하반기로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중략)… 오히려 더 교류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가 ①)

-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 및 업무 지원)** 많은 예술인들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행정업무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과 예술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부분의 연결고리 및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기대하고 있음

“제 댄에서는 많은 사업은 아니었지만 일반창작을 지원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나마 제일 교부, 정산 이런 페이퍼 작업을 하는 행정적인게 제일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창작에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다른 거처아 되는 조금 번거로운 과정들에 덜 소모되는거죠.” (예술가 ②)

2-2-2 문화매개자

□ 예술가와 주민 간 연결 방식에 대한 의견

- (수요 기반 프로그램 운영의 구조적 한계)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요에 기반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나, 실제 현장에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프로그램의 운영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급자의 측면에서는 예술가가 실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공급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행정이나 중간지원조직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를 섭외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음
 -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일 이외의 부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진 특정 수요자들의 반복적인 참여만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존재함

“공급자와 수요자가 과연 예술가와 주민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공급자는 중간지원조직이나 행정이 이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주민들에 참여하라고 하거든요. 사실 공급자가 이제 예술가가 돼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저희 현재 지역에서 실상으로는 공급자가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가는 강사로서 들어오는 경우가 좀 가장 많은 것 같고. 수요자는 주민인데 주민도 어떤 주민인가에 따른 좀 더 디테일하게 타겟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면 일반 주민들이라고 하면 참여를 웬만하면 안 합니다 사실은. 각자 요즘 먹고사는 게 가장 힘들고. 또 서귀포 사람들은 농사와 N잡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프로그램들을 보면, 문화도시나 도시재생을 보면 했던 사람이 계속 중복해서 참여를 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매개자 ③)

- **(수요자와 공급자 간 니즈의 미스매칭)** 문화예술 콘텐츠를 창작할 경우 예술가들이 희망하는 부분과 실제 소비자인 주민들이 희망하는 부분 간에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소비와 공급이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

“예술인들은 자신의 개성과 창작 욕구가 뚜렷하다 보니까 그런 욕구적인 부분에서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술문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소비하거나 향유하고자 하는 주민분, 청년들 간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생활문화를 향유한다는 느낌으로 좀 거기에서 오는 갭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좀 같이 연결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고.” (매개자 ②)

- **(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프로그램 설계)**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본인의 주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콘텐츠 향유자들은 대체적으로 일 하는 시간 이외에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업, 자영업 등에 대한 비중이 높은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주민 주도의 어떤 무슨 문화도시든 도시재생이든 문화예술이든 하려면 주민들에게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어찌됐든 피곤하고 저희가 싫다 하더라도 주민들에 맞는 타임라인에 우리가 해야 되고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중략)… 물리적으로 시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급자 기준의 어떤 프로그램 설계보다는 수요자 중심에 해야하고…” (매개자 ③)

□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정책수요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동일한 서귀포시 내에 있는 지역일지라도 지역별로 생활 패턴과 농사 시기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사업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인식함
- 서귀포시 내 각 지역(대정, 성산, 표선, 남원 등)의 특성과 주민들의 생활 패턴, 농사 시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함

“지금은 대정은 5월달까지가, 5~6월달이 가장 바쁘고. 성산은 또 반대로 거꾸로. 또 남원과 표선, 감귤 하는 데는 11월부터가. 그 지역마다 다 시간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서귀포의 수요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정권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성산, 표선 쪽을 위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매개자 ③)

- **(소통 및 홍보 플랫폼 부족)** 서귀포시 내에서도 다양한 주민들의 다양한 니즈가 존재하지만, 서귀포시의 광대한 지리적 범위, 연결통로 부재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예술가-주민 간 소통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함
- 또한 읍면지역의 경우 예술가와 주민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더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까지는 단순히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한 홍보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홍보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따라서 서귀포시의 광대한 지리적 범위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소통 및 홍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플랫폼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그것에 대한 어떤 원인으로서는 소통적인 부분에서 중간 소통에 대한 플랫폼적인 역할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나. 워낙에 서귀포시가 광역. 그러니까 광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지역문화에서 어떠한 니즈와 어떠한 타겟을 가지고 어떤 곳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합의된 적이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마을회나 부녀회 외에서는, 그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난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는 어떠한 통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연결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매개자 ②)

“저희가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아무래도 홍보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역 어린이날 행사에도 참여해서 부스 운영 같은 걸 하면서 주민분들을 만나는데. 그러면 사실 만났을 때는 어떤 딱히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되게 만족하고 재미있고 새롭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게 있는지 전혀 몰랐다. 그리고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좀 꽤 많이 듣는 편이어서 저희의 존재나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알려지는 게 저희가 좀 한다고 했는데도 잘 안 알려졌더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장소랑 전시를 홍보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고.” (매개자 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의 사무장이 정말 이걸 관심 있어가지고 문화 도시에서 오는 공문을 보고 우리가 어떤 걸 참여하고 이런 것도. 아예 저희 중문 마을 사무장은 아예 저희한테 전달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마을에서 하려면 부녀회를 통해서 매개가 되지 않으면 조금. 근데 부녀회들도 많이 관심 없어요 사실은.” (매개자 ④)

- **(일회성, 단기적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대부분의 문화 예술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닌 일회성, 단기적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어 문화예술의 지속적 향유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
- 실제 주민들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향유하고 거주지역의 문화예술 여건이 좋다는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특히나 많은 곳에서, 청년센터나 아니면 재단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약간 단기적이거나 일회성적인 것으로 해서 매개자가 상당히 소비적인 역할을 소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멈추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그것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체감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개자 ②)

- **(예술강사에 대한 지원 부족)** 전반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예술강사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함
 - 이들은 대체적으로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공급자인 예술가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본 예술가들의 발언 내용과도 일치하는 부분으로서, 문화매개자의 특성상 이들이 문화예술 콘텐츠의 소비자이기보다는 공급자에 더욱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여짐

“근데 지금 버스킹은 엄청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노래하시는 분들. 근데 또 이렇게 예술강사분들 지원은 확 줄어드니까. 저희조차도 지금 문화도시 예산 확 줄어가지고 올해 많이 못 하고 있는데.” (매개자 ⑥)

“강사들은 현재 사실 예산 삭감되고 뭐 삭감되면서 진짜 2차 보릿고개라고 저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매개자 ①)

-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성 명확화 필요)** 문화예술 정책의 범위 자체가 매우 넓기 때문에 정책 추진 주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정책을 설계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방향성 설정이 사전에 이루어져야만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적절한 니즈를 표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 즉,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 방향성이 사람, 공간,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사업 등 어떤 곳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이 높일 수 있다는 의미임

“그래서 문화예술 활성화라고 하면 지금 재단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의 정책의 방향이 사람을 많이 늘리는 것인가, 아니면 공간을 많이 좀 더 확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 것에 대한 방점을 찍고 있는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더 다양한 것들이 많아져서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제주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원사업이 진짜 더 뭔가 혁신적인 것들이 많아서 기획자라든가 예술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서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게 이제 지금 문화예술 활성화라 그러면 사실 너무 많은 얘기가 오갈 것 같아서...” (매개자 ③)

□ 전담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존재)** 매개자들은 공급자, 수요자, 매개자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특히나 많은 곳에서, 청년센터나 아니면 재단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약간 단기적이거나 일회성적인 것으로 해서 매개자가 상당히 소비적인 역할을 소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멈추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그것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체감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개자 ②)

- 다만 단순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의 전담조직은 필요성이 높지 않으며, 공급자와 수요자, 매개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역할 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함

“필요는 해요. 근데 이게 예술가적인 입장과 기획자적인 입장과 수요자적인 입장이 사실 다 다른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는 조직이 있어서 나를 관리해 주면 너무 좋죠. 저를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게 여기저기 홍보해 주신다면. 근데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좋겠죠. 내가 배우고 싶은 거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알려주면. 근데 기획자적인 입장으로는 애네가 돈 대준다라고 하면 좋겠죠. 근데 이런 거 아니고 정말 기획자들에게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전담조직이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또 싫겠죠. 그래서 약간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은 반드시 필요한 거는 같은데. 같이 고민을 나눠주고 같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매개자 ①)

“당연히 필요하지만 또 이게 마냥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과 예산과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재단에서 충분히 좋은 것들도 많고. 재단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는 걸로 저도 좀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굳이 필요가 있을까 라는 거고. …(중략)… 정책 같은 경우도 제주시에서 바라보는 문화예술과 또 서귀포 지역에서 바라보는 문화예술. 문화 불균형 현상이 지금 워낙 산남과 산북이 너무 명확하게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매개자 ③)

- **(지역별 맞춤형 정책 설계 및 조정)**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경우 제주도 전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 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담조직의 활용을 통해 서귀포시 각 지역 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문화예술 정책을 설계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

“서귀포 지역 아까 성산, 표선, 대정 다 달라서 그거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정리를 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그 읍에 맞는, 면에 맞는 문화예술 타임을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구요.” (매개자 ③)

- (소통 플랫폼 구축 및 문화예술 자원 아카이빙) 현재 운영중인 ‘꿈터’를 특정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활용을 함과 동시에, 재단은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네트워킹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나 공간자원, 문화자원 등에 대한 아카이빙 역할 수행이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문화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꿈터가 하나의 서귀포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테스트베드로서 공간으로 설정을 만약에 한다면 재단은 그걸 포함한 더 큰 우리 광역 차원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또 그런 플랫폼이 돼서 아까 얘기했지만 네트워킹. 누가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들 서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개자 ③)

“어떤 기획자가 있는지, 어떤 공간이 있는지. 문화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카이빙이 되어서 이 문화자원에서는 이분을 모셔야되지. 이 공간에서 한번 하고 싶은데 이 공간과 연락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일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분류가 되어가지고 나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떤 기획자와 공간으로써 또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매개자 ②)

2-2-3 지역주민

□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문제점 인식

- (공급자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 서귀포시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 등이 기획,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향유자 친화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함

“제가 여기 서귀포에서 지내면서 느끼는 건 뭐가 열렸으니까 와서 보seyo가 아직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물론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그림 전시회를 보고 싶어 하면 언제든지 검색하면 어디선가에선 열리고 있고. 음악

을 듣고 싶으면 어디선가에선 열리고 해서 가서 본 이런 쪽으로 발전돼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겠지만, …(중략)… 어디에 뭐가 열린다 라고 홍보를 하시고, 거기에 내가 볼까 말까 한 다음에 가든 말든. 이런 게 대부분의 현재 서귀포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향유자 ⑥)

- **(낮은 정보접근성)** 서귀포시 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개최되더라도 관련 행사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정보 접근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
 -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는 서귀포시 문화예술포털, 제주시놀다 등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운영중에 있지만, 실제 향유자들은 운영중인 플랫폼에 대한 관련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이러한 발언내용으로 미루어보면, 향후 서귀포시 지역의 문화예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조성하거나 기 운영중인 플랫폼 활성화, 홍보 등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볼 수 있음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제가 문화예술에 충분히 관심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심이 없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그게 뭐였는지,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됐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향유자 ⑫)

“그래서 만약에 이 조직이 재단 소속의 재단이고 이게 좀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면 모든 문화활동을 아울러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아까도 팀장님께서 무슨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어딘가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향유자 ⑥)

- **(중구난방식 행사 기획 및 통합적 관리 부재)** 문화예술 행사들이 체계적 기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나 정보들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이를 조율하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지금 다 얘기한 것 중에서 전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난방 되어 있는 행사들을 조금 토대를 모아서 좀 핵심을 잡고 겹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향유자 ⑩)

“그러니까 문화재단 쪽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건 여기 가서 봐야 되고, 만약에 김정문화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여기서 봐야 되고, 서귀포예술회관에서 하는 건 또 거기에 또 가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찾는 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거죠” (향유자 ⑥)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운영중이나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수요자가 몰려서 콘텐츠 이용이 어려운 반면,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충분히 이용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막상 그 프로그램이 열릴 때 신청하려고 하면 이미 마감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횟수는 좀 적은 것 같거든요. 아까 예술의 전당 말씀하셨는데 저 예술의 전당 좋아하는데. 문자를 제가 받게 설정을 해놨어요. 거기서 행사가 열리면 문자 받게 해놨는데 티케팅에 항상 실패해요. 항상 그 경쟁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어떤 공연이나 연주 같은 게 열리면 티케팅 하자마자 마감돼요. 그렇다는 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원하는 사람은 더 많고, 그에 비해서 공급은 약간 적은 상태가 아닐까.” (향유자 ⑫)

- 또한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에 있어서 콘텐츠별, 연령대별 다양성이 고려되지 못하면서 수요자들이 희망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 있기는 해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 도서관 이런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제주도에 와서까지 '굳이 가야 되나? 차라리 바다에 한 번 더 가고 공원에 한 번 더 가고 산에 한 번 더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인프라보다는 그 안에 꾸려져 있는 전시의 내용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향유자 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아직 조금 젊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서귀포에 내려와서 저는 여기는 약간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공연이 많다고 오히려 느꼈거든요. 저희 직원분들도 아무래도 자녀를 데리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미혼도 많고 젊은 직원들도 많은데 그런 젊은 직원들을 위한 약간 공연이나 이런 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약간 느껴요” (향유자 ⑭)

□ 서귀포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대한 수요

- **(연령대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자체는 매우 높은편이나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령대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20~30대이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수요가 높은 어떤 대상에 대한 공연이나 전시가 어렵다면 도자기라든지 어떤 책을 만들어본다든지, 아니면 전통차를 체험해 본다든지 문학책을 같이 읽어본다든지 이런 관계자들과의 연결성을 좀 줄 수 있는 문화예술 그런 사업 같은 것들을 한다고 하면 참여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향유자 ⑧)

- **(지역 특색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 서귀포시가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비교우위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여 자연 체험, 지질탐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리고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꽃자왈이나 자연이나 이런 걸 배경으로 한 숲 해설이나 이를 테면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건 새 구경하는 거라든가. 자연에서만 할 수 있는. 서울에서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 들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향유자 ⑫)

-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선호)** 현재 서귀포시에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행사, 시설들이 단순 관람형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일률적인 방향에서 벗어나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저는 아까 국제교류재단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이런 큰 공연은 사실 내가 보고 싶은 거 사실 육지를 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좀 동호회 식으로 내가 뭔가 한번 만들어보고 성취해 보고 이런 경험들이 저는 여기서는 더 소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략)… 저는 참여 프로그램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향유자 ③)

□ 전담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 **(전담조직 운영의 필요성)** 서귀포시 내 문화예술 행사들이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유자 관점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합쳐지는 작업을 통해서 공지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학습돼서 이렇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그 전에도 사실은 들긴 했었고 지금 또 회의를 하면서 저도 한 번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향유자 ⑤)

- **(중복방지 및 조정 역할)** 서귀포시 내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시 각 기관별 행사 일정을 조율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균형있게 제공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문화재단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도 주최로 하시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열리면서 각 시별로 또는 다른 재단별로 다른 콘텐츠별로 곳곳에서 가능한 한 안 겹치게끔. 물론 주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도 예술재단 정도가 주최를 해서 연간계획을 세우는 집단들이 많다면 그걸 같이 좀 공유해서 좀 이렇게 시기를 조절해가지고 다른 콘텐츠들이 열리게끔...” (향유자 ⑥)

-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통합된 정보 제공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콘텐츠를 재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 내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함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화를 달별로 총괄해서 하는 게 작년에 있었어요. 조미진이라는 문화행사 달력이 각 기관별로 이렇게 몇 부씩 다 전달이 됐었는데. 문화행사가 달별로 싹 다 표시되고, 서귀포에서 구석구석 어디에서 뭘 하는지 달력으로 다 표시된 게 있었는데. 종이다 보니까 …(중략)… 그게 서귀포에 일어나는 모든 문화행사를 하나의 달력으로 매달 하는데 너무 예쁘고. 전 사실 너무 예뻐서 이렇게 매달 걸어놨거든요.” (향유자 ⑬)

“그러니까 행사를 알리고 한다는 게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써야 겨우 사람들에게 가서 되는 게 요즘인 것 같아요. 워낙 볼 게 많으니까.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향유자 ⑫)

- (지역 예술인 유치 및 지원역할 수행) 서귀포시 지역 내에서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예술인들을 지역에 유치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함

“하나는 지역문화의 질을 높이는 거가 필요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를 더 지원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외부인 작가를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자주 하진 못하겠지만 어떠한 식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든 외지에 있는 작가들을 여기 레지던스를 시키든 아니면 초청을 해서 강연이나 행사를 하든 그런 것들을 섞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유자 ⑫)

2-2-4 요약 및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화예술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세 집단(예술인, 문화매개자, 향유자)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의 문제점 및 문화예술 정책 수요, 전담조직의 필요성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예술인 5명, 문화매개자 6명, 향유자 14명 등 총 2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집단별로 1~2시간의 집단면접을 실시하였음
- 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집단의 면접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III-21>과 같음

〈표 III-21〉 면접 집단별 분석결과 요약

구분	예술가	매개자	향유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차원의 예술창직 지원사업 부족 •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기반 프로그램 운영의 구조적 한계 존재 • 수요자와 공급자 간 니즈의 미스매칭 • 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프로그램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자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 • 낮은 정보접근성 • 중구난방식 행사 기획 및 통합적 관리 부재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정책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과 예술가 간 양방향 상호작용 필요 • 예술인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 소통 및 홍보 플랫폼 조성 필요 •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예술강사에 대한 지원 강화 •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성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대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 지역 특성 프로그램의 발굴 • 참여형 프로그램 발굴
전담조직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간, 주민 간 네트워크 및 중재 • 정보획득을 위한 중간채널 •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맞춤형 정책 설계 및 조정 • 소통 플랫폼 구축 및 문화예술 자원 아카이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중복 방지 및 조정 • 지역예술인 유치 및 지원

○ 각 집단별로 제시된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보면, 본 면접조사에서는 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 ②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③ 정책 대상의 명확화, ④ 컨트롤 타워 역할의 전담조직, ⑤ 예술인과 주민 간 소통 강화 등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모든 집단의 조사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서귀포시 내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 설계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제주시 지역의 경우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는 이와 같은 거점 시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바, 이로 부터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조성, 컨트롤 타워 설치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현재 서귀포시 문화예술 환경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문화예술 정책 등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술과 주민 간 소통 강화, 정책 대상의 명확화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IV.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환경 SWOT 분석

1. 내부환경 분석

1-1. 강점(strength)요인

□ 다양한 물적 인프라

-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수는 약 2.7배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문화공간 지원의 경우 그 격차가 인구 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2024년 기준 서귀포시의 인구 수는 182,020명으로서, 제주시(488,348명)의 약 37.3% 수준인 반면, 문화공간 자원은 135개소로서, 제주시(192개소)의 약 70.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관광 전용 시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예술 인프라의 측면에서는 다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물적 인프라 측면에서 서귀포시는 제주시 지역에 비해 인구 1인당 문화공간 자원 보유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서귀포시는 현재 문화예술 콘텐츠를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주요 행위자들의 니즈인 정보접근성 개선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서귀포시는 현재 지역주민의 문화접근성 개선을 위해 '서귀포 문화예술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서귀포시 문화예술 여건과 관련된 면접조사 결과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기 구축된 서귀포 문화예술포털의 존재는 향후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충분한 예술인 인적자원 보유

-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도내 전체 예술인의 약 30%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주지의 지역별 분포 또한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
 - 2024년 21월 기준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예술인은 838명으로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예술인(2,895명)의 약 28.9%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의 31.9%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안덕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지역에 50인 이상의 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적자원 측면에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특성 또한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특성은 향후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연령에 따른 서귀포시 예술인 현황 분석 결과, 20~30대 청년(29.7%), 40~50대 중장년(51.1%), 60대 이상 노년(19.2%) 등 전 연령대에 걸쳐서 고르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여성 예술가의 비중(57.3%)이 남성(42.7%)에 비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정 성별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임

□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예산 비중

- 지난 10년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문화예술 예산액을 분석해보면, 서귀포시 문화예술 예산액은 제주시 문화예술 예산액의 약 8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6~2025년 제주시의 평균 문화예술 예산액은 15,848,011천원으로서, 서귀포시(13,776,092천원)의 8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0년간 총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중 또한 제주시(1.0%)에 비해 서귀포시(1.4%)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서귀포시의 주민등록인구 수가 제주시 주민등록인구 수의 37.3%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서귀포시는 지역민의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해 제주시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행정시별 인구 1인당 문화예술 예산액을 분석해보면, 서귀포시의 인구 1인당 예산액은 76.1천원으로서, 제주시(32.5천원)의 약 2.3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 인구 규모가 작아 민간 시장의 형성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의 문화예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민간이 아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 소수 의견을 가진 수요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문화예술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1-2. 약점(weakness)요인

□ 지역 맞춤형 정책 부재

- 행정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문화예술 인프라들이 대체적으로 동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하게 되면서, 읍면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문화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결과가 야기되었음
 - 제한된 공공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행정행위의 기본적인 기능을 고려했을 때, 동 지역에 입지한 시설 중심의 대규모 예산 투입은 역설적으로 읍면지역으로 투입이 가능한 문화예술 예산의 감소를 의미함
 - 실제 이중섭거리, 서귀포 예술의 전당,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등 행정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문화예술 시설들은 모두 동 지역 내에 입지하고 있음
- 그 결과 문화활동 참여도, 접근성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문화예술 여건들을 비교했을 때, 읍면지역 주민들의 동 지역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접근성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동 지역 주민들(연평균 0.51회)에 비해 읍면지역 주민들(연평균 0.37회)의 문화활동 횟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중도 동 지역(11.7%)에 비해 읍면지역(33.2%)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동 지역과 읍면지역은 연령, 이주여부 등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구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한 사업 발굴이 필요함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발생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 내 주민 연령대별로 문화예술 환경이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상이하게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제주의 사회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연령대별 응답을 비교 분석해보면, 젊은 인구의 낮은 문화환경 만족도, 노년층의 낮은 문화활동 참여도, 연령대별로 상이한 문화시설 수요 등 각 연령층별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고 있음
- 또한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조사대상 집단에서 문화예술 정책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음
 - 공급자인 예술인 및 매개자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수요 기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나, 수요자의 경우 공급자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즉, 현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서 수요에 기반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서귀포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은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 비효율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여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낮은 정보접근성 및 홍보 부족

-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집단의 조사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및 플랫폼 조성 등과 관련된 정책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 결과, 예술가들은 관련 정보획득을 위해, 매개자들은 소통 및 홍보를 위해, 향유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를 위해 정보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원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강화에 대한 니즈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과 관련하여 읍면지역 응답자의 12.4%가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동 지역(5.9%)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임
- 서귀포시의 경우 현재 문화예술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중인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접근성 및 홍보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은, 해당 플랫폼이 정보전달 및 교환의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음
 - 서귀포 문화예술포털, 여가인제주 등 서귀포시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접근성에 대한 요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기 운영중인 플랫폼의 활성화 정도가 매우 낮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홍보 강화, 기능 개선 등을 실시하고, 구축된 플랫폼을 실질적인 정보전달 및 교류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넓은 대상지역 및 긴 이동거리

- 서귀포시의 경우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등 제주시에 비해 읍면지역의 인구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소수 인구 중심의 생활권 조성을 야기하여 거점형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 시설의 입지에 있어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즉, 서귀포시는 제주시와 유사한 수준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인구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그나마 읍면지역에 비해 동 지역이 좁은 면적 내에 많은 시설들이 밀집되면서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읍면지역에 거주중인 주민들은 생활편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동 지역으로의 물리적 이동이 필수적인 상황임
 - 동-서로 긴 모양을 가진 서귀포시의 특성 상 행정시의 양 끝단에 거주중인 읍면지역 주민들의 경우, 동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40분~1시간의 이동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는 고령층의 문화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높은 고령인구 비중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고령층의 문화서비스 이용 성향 등과 맞물리면서, 고령층의 문화예술 서비스 이용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
 - 고령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이동거리가 짧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체 이동거리가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Hong, A., 2024), 타 연령층에 비해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물리적 이동을 감수하는 경우 또한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즉, 현재 서귀포시의 경우 물리적인 특성 및 인구구조적 특성 상 동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문화예술 서비스 향유 기회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2. 외부환경 분석

2-1. 기회(opportunity)요인

□ 균등한 향유기회 제공 가능성

- 제주지역 행사 및 축제 현황을 분석해보면,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 관내에서 더욱 많은 축제 행사들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4월 15일 기준 제주관광공사 VISIT JEJU에 공개된 제주지역 축제 및 행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에 개최되었거나 개최 예정인 행사는 53개로서, 서귀포시(45개)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많은 행사들이 사설 관광지들을 중심으로 기획,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행사를 기획, 운영하는 다수의 관광지들이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읍면지역의 문화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의 경우 읍면지역(26개)이 동 지역(19개)에 비해 행사나 축제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롬왓, 휴애리, 마노르블랑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관광 사업장들이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주로 입지하면서 발생한 결과인 것으로 보여짐

□ 정책추진 주체 다원화 가능성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설치에 지역단위 문화예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책추진 주체의 다원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주도를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3개 기초자치단체로 분할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이재명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

단체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음

- 즉, 행정체제가 개편될 경우 서귀포시는 예산 권한에 대한 자치권이 확대되면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 영역을 확대하거나, 기초단위 재단 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타 지역의 경우 지역 내 문화예술 환경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해 기초단위 문화예술 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자료 기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2.7%에 달하는 119개 기초자치단체가 현재 기초단위 문화예술재단을 운영중에 있음
- 현재 서귀포시는 행정시로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체적인 사업 발굴, 기초단위 문화예술재단 운영 등에 있어서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향후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자체 사업의 발굴, 서귀포시 문화예술재단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서귀포시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 현재 서귀포시 내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예술인들은 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공식적인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중 다수가 예술인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전담조직의 설립을 통해 예술인 간 네트워크 및 중재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이러한 현실에 따라 현재 서귀포시 예술인들은 지역 내에 개인적으로 연결된 사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식적인 예술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됨
 - 실제 제주도내 많은 예술인들이 자체적인 예술인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거나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서귀포시 예술인들의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현재 예술가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보다 빠른 시간안에 공식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2-2. 위협(threat)요인

□ 청년인구 감소

- 서귀포시 지역은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곧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주요 수요자층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
 - 2024년 기준 서귀포시 청년 인구 수는 33,735명으로서, 10년 전인 2015년 (37,885명) 대비 4,150명 감소함
 - 2022년 통계청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40대의 경우 평균 50% 이상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을 보이나, 50대는 30%대, 60대 이상의 경우 10~20%대로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지역 내 20~30대 청년 인구 감소는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소비계층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청년 수요층의 감소는 반대로 비중이 증가하는 중장년 및 노년층 중심의 정책 설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설계는 다시 청년인구를 감소하게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발굴로의 정책발굴 기조 변화는 행정이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수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사회를 변화시켰음
 - 실제 주민참여예산 증가,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증가 등은 수요에 기반한 정책 발굴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정책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지역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내 다수의 수요를 차지하는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수요자가 적은 계층의 경우 지속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음
- 즉, 제한된 예산 안에서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설계하게 될 경우, 지역 내 다수가 밀집된 연령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설계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문화예술 정책의 단순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구도심 및 읍면지역의 고령화

- 서귀포시 구도심 및 읍면지역은 지속적인 아동, 청소년, 청년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년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2024년 기준 서귀포시의 65세 이상 노년 인구 수는 41,734명으로서, 전체 인구(182,020명)의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17.6%) 대비 5.3%p 증가한 수치임
 - 2024년 서귀포시 읍면지역 및 구도심(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지역의 노년인구 비중은 26.2%로서, 이외의 동 지역 평균(19.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는 지방소멸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지역문화의 소멸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만 20~39세 여성인구를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와 관련하여 제안 및 제시되는 지표임
 - 2024년 기준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평균 값은 0.29로서, 2015년(0.47)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그 수치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하며, 1.0 미만인 경우 주의 단계, 0.5 미만인 경우 소멸위험진입 단계, 0.2 미만인 경우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구분함
- 지방의 소멸은 문화예술 측면에서 지역문화 소멸로 인한 문화 콘텐츠의 감소로 이어질 여지가 매우 높은 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음

□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높은 자영업자 비중

- 서귀포시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관광 산업의 사업체 비중이 높고, 규모별로는 1인 사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전국 사업체 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 전체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관광관련 사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규모별로는 60.3%가 1인 사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제주시 지역에 비해 상용근로자 비중이 낮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상황이며, 지역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상용근로자 비중(37.6%)이 제주시(49.7%)에 비해 낮고, 비임금근로자 비중(45.5%)은 제주시(31.9%)에 비해 높으며, 지역 외 근로자 비중(5.2%) 또한 제주시(4.1%)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서귀포시의 높은 관광산업 비중, 높은 자영업자 비중, 높은 지역 외 근로자 비중 등은 필연적으로 낮은 가구소득, 긴 근로시간, 짧은 여가시간 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문화예술 향유 여건의 어려움이라는 결과로 귀결됨
 - 산업, 노동 측면에서 서귀포시 지역은 일 이외에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여가시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소비하여 타 지역(제주시 등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이를 요약하면 현재 서귀포시 지역은 문화예술 콘텐츠 향유에 있어서 물리적, 시간적 접근성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진단이 가능함

□ 행정시 구조의 한계로 인한 기초단위 재단 설립의 어려움

- 서귀포시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자체적인 문화재단의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다수의 지자체들이 지역의 특수한 자원을 토대로 지역 내 문화환경을 보존하고 고유한 문화 콘텐츠들을 생산해내고 있지만, 서귀포시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위한 신규 조직의 마련이 어려운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를 3개의 기초자치단체로 분할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기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초 2026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목표로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시도한 바 있으나, 중앙정부의 불안정으로 절차가 중단된 바 있음
 - 다만 최근 제21대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실제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즉,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현 시점에서 서귀포시 문화예술 환경 개선을 위한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3. 종합분석 및 전략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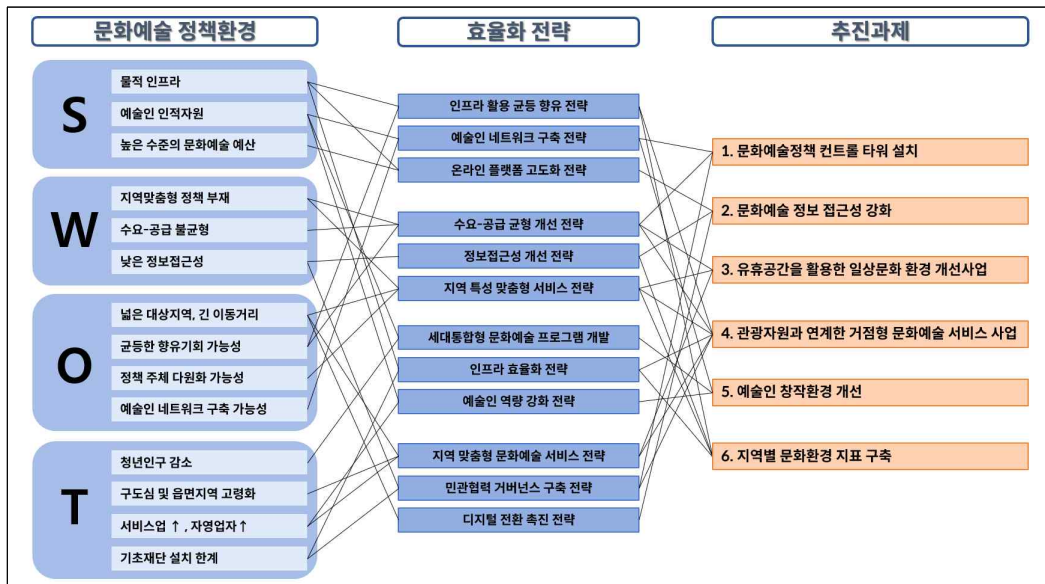
-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 환경에 대한 SWOT 결과 및 전략은 다음 <표 IV-1>과 같음
- SO전략은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 균등 향유,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를 전략으로 제시함
 - WO전략은 약점을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수요-공급 균형 개선, 정보접근성 강화, 지역 특성 맞춤형 서비스를 전략으로 제시함
 - ST전략은 강점을 활용하여 위협을 완화하는 전략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예술인 유치 및 정착 지원, 인프라 효율화, 예술인 역량 강화를 전략으로 제시함
 - WT전략은 약점과 위협을 동시에 극복하는 전략으로서,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 서비스,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디지털 전환 촉진을 전략으로 제시함

<표 IV-1>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도출

내부 외부	강점 (S)	약점 (W)
	SO전략	WO전략
기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균등 향유 전략 : 풍부한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간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전략 : 고르게 분포된 예술인 인적자원을 활용한 공식적 네트워크 구축 •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전략 : 서귀포 문화예술포털을 고도화하여 정보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공급 균형 개선 전략 : 연령대별, 지역별 문화예술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정보접근성 강화 전략 :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정보접근성 개선 • 지역특성 맞춤형 서비스 전략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거점형 문화예술 서비스 확대
	ST전략	WT전략
위협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통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전략 : 다양한 연령 및 성별의 예술인을 활용하여 세대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 인프라 효율화 전략 : 풍부한 물적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행정 한계 극복 • 예술인 역량강화 전략 : 다양한 예술인 자원을 활용한 세대 간 협업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 서비스 전략 : 인구구조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전략 : 행정시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 디지털 전환 촉진 전략 :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정보접근성 개선

- 앞서 도출한 12개 전략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 효율화를 위해, 총 6개의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음
- 구체적으로 ① 문화예술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② 문화예술 정보 접근성 강화, ③ 유휴공간을 활용한 일상문화 환경 개선사업, ④ 관광자원과 연계한 거점형 문화예술 서비스 사업, ⑤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⑥ 지역별 문화환경 지표 구축이라는 총 6개의 추진 과제를 제안함

〈그림 IV-1〉 서귀포시 문화예술정책 효율성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도출



V. 서귀포시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

1. 문화예술 정책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시와 비교했을 때 인구 수 대비 많은 문화예술예산을 투입하는 등,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서귀포시 주민등록인구 1인당 평균 문화예술 예산액은 76.1천원으로 서, 제주시(32.5천원)의 2.3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8년부터 2022까지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서귀포시 동 지역의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해 제주문화증개소 사업을 운영한 바 있음
- 이는 서귀포시의 관광도시로서의 특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로 인한 민간시장 발달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결국은 민간시장을 통해 공급되는 서비스 시설의 부족을 행정예산 투입을 통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서귀포시 문화예술 예산 분석 결과 및 예술가 면접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서귀포시 문화예술 사업 중 많은 부분이 지역 내 주요 관광지(이중섭 거리, 새연교, 야외공연장 등) 개선 및 관련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시 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민간 시장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행정지원을 통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임계인구(threshold population)의 개념을 적용해 봤을 때, 해당 지역에 서비스 공급을 위한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소비자)가 특정 이동범위 이내에 밀집해서 존재해야 함
 - 즉,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제주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민간시설 입지를 위한 임계인구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문화예술 서비스 시설 부족으로 이어질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정 사업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정책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됨
 -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의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 체계는 모든 지역에 많은 수의 소규모 시설을 공급하기보다는 소수의 결절지(regional nodes)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김정연, 2013)
 - 중심지 이론이란 일정한 지역 내에서 공공 및 민간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이 집중된 거점(중심지)을 설정하고, 그 중심지로부터의 공간적 접근성과 수요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서비스 공급 체계를 조직하는 공간 계획 이론임
 - 즉, 중심지 이론은 정책 공급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체계를 구축하는데 적절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음
 - 따라서 중심지 이론의 관점에서 지역단위 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정도의 위계에서 결절지를 선택하는가’라고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여건이 낮은 읍면지역에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 시설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읍면단위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권역단위로 제공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는 리 단위로 제공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함
 - 다만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소비패턴이나 환경, 자원현황 등의 지역특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누적되어 있어야 하는 바,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귀포시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문화예술 정책 수립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가칭) 서귀포 문화예술센터”의 설치를 제안함
 -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내에서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지역 자원에 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 서귀포시의 경우 다양한 정책 주체에 의해 각각의 사업들이 발굴, 추진되면서, 각 사업 간의 중복이나 사각지대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다만 전반적인 정책 환경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컨트롤 타워의 설치 현실적으로 한계가 발생할 여지가 높은 바, 본 연구에서는 광역단위에서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제주문화예술재단 내 별도 부서의 형태로 서귀포 문화예술센터 설치를 제안함

-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지역의 특성 상 기초재단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고려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서, 제주지역 문화예술 환경 조성 및 정책 개발, 예술인 복지 지원, 문화예술 정보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경우 조직의 운영 목적 및 사업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조직구조 내에서 서귀포시만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재단 내에 별도의 센터를 조직하는 형태로 서귀포시 문화예술 정책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를 제안함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경기문화예술재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예술환경이 열악한 경기도 북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 내에 별도의 부서인 북부문화사업단을 구성, 운영한 사례가 존재함
- 서귀포시 지역의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칭)서귀포 문화예술센터의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음

(가칭)서귀포 문화예술센터 구상(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정책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지역 내 수요 반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간 단절이 발생하고,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됨
- 동 지역과 읍면지역 간 지속적인 문화환경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역수요 기반의 사업 발굴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해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집행 간 연속성에 있어서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2. 조직 형태

- 명칭: (가칭)서귀포 문화예술센터
- 위치: 제주문화예술재단 내 하부조직
 -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산하에 별도의 하부조직을 구성하되, 현재 운영중인 서귀포문화예술TF팀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은 신설되는 센터로 이관하는 형태 제안
 - 장기적으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 기초단위 재단인 서귀포문화예술재단으로 전환 고려 가능



3. 주요 기능

- 정책 기획 : 서귀포시 문화예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 작성
- 사업 조정 : 유사·중복 사업 간 연계 및 통합, 효율성 제고
 - 서귀포시 내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종 정책 주체 대상 관련 정보제공 기능 수행
 - 지역수요를 기반으로 각 사업주체에게 정책을 제안하거나 기존 정책의 방향성 수정을 제안 하는 등의 조정업무 수행
- 수요기반 정책 발굴 : 읍면지역 포함 지역 맞춤형 사업기획
 - 유휴공간을 활용한 일상문화 환경개선 사업, 관광자원과 연계한 거점형 문화예술 서비스 사업 등 지역단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수요 발굴 업무 수행
- 민관 협력 창구 : 민간 관광지, 예술인, 주민참여 주체 간 연결
 - 관광자원과 연계한 거점형 문화예술 서비스 사업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여건 개선, 지역자원 간 연계를 통한 효율적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업무 수행
 - 서귀포시 문화예술 담당부서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조력자 역할 수행

- 데이터 구축 : 문화통계, 예술인 DB, 문화 수요조사 등
 - 장기적인 문화예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수요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귀포시 문화예술 지표 구축 및 관리 업무 수행
 - 지역 내 예술인 DB를 구축하고, 실용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DB 관리, 운영 실시
- 홍보 및 소통강화 : 서귀포 문화예술 플랫폼 관리 및 홍보 콘텐츠 기획
 - 지역 내 문화예술 자원 및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운영
 - 예술인 대상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예술인 간 정보교류 지원
- 예술인 지원 : 공모정보 제공, 레터링, 행정업무 지원 등
 - 서귀포시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등록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행정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

4. 인력 구성

- 전반적인 기능 및 과업 수행량 등을 고려하여 총괄인력 포함 총 5인의 인력을 활용한 조직구성 및 운영을 제안함
 - 운영총괄(센터장) : 총괄 운영 및 정책기획
 - 사업운영 : 지역기반 문화정책 수립, 주민연계 사업 및 축제 실행 등 지역사업
 - 예술인지원 : 지역 예술인 관리 및 아카이빙, 예술인 지원사업 등
 - 데이터 구축 및 지표관리 : 문화예술 DB 구축, 문화예술 지표 구축 및 관리 등
 - 행정지원 : 예산, 회계, 홍보, 대외협력 등

2. 문화예술 정보 접근성 강화

- 서귀포시에는 현재 지역주민의 문화접근성 개선을 위해 서귀포 문화예술포털, 제주인놀다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 서귀포 문화예술포털은 서귀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 정보통합 플랫폼으로서, 서귀포시 내 주요 문화시설과 연계를 통한 정보 제공, 전시작품에 대한 온라인 열람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제주인놀다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도내 문화시설 및 공간정보 제공, 지역 예술인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이렇듯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귀포시 주민들의 다수가 플랫폼의 존재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정보획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참여자들이 문화예술 플랫폼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플랫폼의 조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원자료 분석 결과, 특히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읍면지역이 동 지역에 비해 관련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대한 홍보 강화의 수요가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현재 문화예술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인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접근성 및 홍보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은, 해당 플랫폼이 정보전달 및 교환의 창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함
 -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들을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고착되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갖추게 됨(김형건, 2021)
 - 즉, 플랫폼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해당 플랫폼에 방문하고 머무르게끔 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이용자들이 방문하지 않는 플랫폼은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
- 최근 공공운영 플랫폼의 경우 사업의 규모와 양 측면에서 크게 확대되는 등 인프라의 공급 측면에서는 많은 관심이 집중되나, 본질적인 목적인 활용에 대한 관심은 부재한 상황임(오윤경·차남준, 2023)

- 공공운영 플랫폼의 조성 및 운영은 필연적으로 행정예산을 수반하게 되는 바, 예산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당초 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플랫폼이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즉, 문화예술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전달 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의 활용 가치 극대화를 통한 문화예술 정보접근성 강화 사업을 제안함
 - 제주인놀다 플랫폼 내에서 별도의 서귀포시 정보 제공 페이지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서귀포시 주민 및 예술가들의 실질적인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시도함
 - 서귀포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별도의 페이지를 조성할 경우, 앞서 제안한 (가칭)서귀포 문화예술센터가 주축이 되어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업데이트,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서귀포에서 진행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예약 등의 기능을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도록 구조화함으로써, 플랫폼의 필수적인 기능을 확대함
-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인놀다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귀포시 주민 및 예술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서비스 페이지를 구축, 운영함
 - 서귀포시 지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문화예술 캘린더를 제작, 운영함
 - 서귀포시 내 예술인 대상 정보전달 페이지 운영, 서귀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DB 구축 및 제공 등을 통해 서귀포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함
 - 서귀포 문화예술포털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상호 간 제공 콘텐츠 영역의 중복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운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인 '제주인놀다'가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를 기획, 운영함
 - 지역별 문화예술 거점과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함
 - 또한 지역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행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함

3. 유휴공간을 활용한 일상문화 환경개선 사업

- 2000년대 이후 추진된 정부의 농어촌 지역 중심의 지원사업들은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다양한 공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음
 - 초창기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원 정책들은 대체적으로 다양한 하드웨어 시설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박상우, 2021), 이러한 정책 방향은 농어촌 지역에 다양한 목적의 공간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음
- 그러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농어촌 지역의 공간들은 사업기간의 종료,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활용되지 않는 지역 내 유휴공간으로 전락하였음
 - 당초 조성 목적과는 달리 이용되지 못하는 유휴공간이 증가하면서, 지역 활력을 목적으로 조성된 많은 공간들이 오히려 지역의 경관 저하, 안전, 지역활력 저하, 공동체 의식 약화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농어촌 중심의 젊은 인구 유출 현상, 저출생 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학교의 폐교가 이루어지면서 유휴공간의 증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제주 읍면지역의 아동·청소년, 청년인구 변화 분석 결과, 39세 이하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는 2015년 68,509명에서 2024년 61,672명으로 10.0% 감소하였음
 -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확인한 제주지역 폐교 정보 분석 결과, 지속적인 아동·청소년 인구감소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제주도에서는 총 8개소(초등학교 7개소, 중학교 1개소)의 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교된 8개 학교 중 7개 학교가 읍면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지역 내 유휴 공간의 증가는 곧 공간 이용 비효율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의 효율성 담보를 위해서는 공간 이용의 효율성 확보 방안이 절실한 시점임
 - 감사원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실태(2019) 조사에 따르면, 전국 965개 지구 내 2,410개 시설물 중 305개소(12.7%)가 유휴·저이용 시설로 확인되었음 (이재호, 2024 재인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도내 폐교 27개소 중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공간은 총 12개소(44.4%)인 것으로 나타나, 도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임
- 농어촌 지역 중심의 유휴 공간 증가 현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자원의 활용 가치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지역 공간자원의 효율성 확보 및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문화 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유휴공간을 활용한 일상문화 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제안함
 - 유휴공간의 활용성 개선은 농어촌 지역의 공간 활용성을 제고하고, 기 투입된 행정예산의 효율적 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우선, 예술 콘텐츠 접근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찾아가는 예술 전시 운영, 마을 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디지털 큐레이션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의 추진을 시도해 볼 수 있음
 - 찾아가는 예술전시 운영 사업은 국공립 미술관이나 지역예술가와 협업하여, 마을 내 거점공간에서 제공하는 이동형 순회전시 프로그램임
 - 이는 읍면지역에서 자주 접하기 어려운 예술작품 전시에 대한 주민들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전시공간이 없는 농촌에서도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정기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마을 큐레이터 양성 사업은 예술 콘텐츠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접근성 완화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일상문화 개선사업임
 -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민 큐레이터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배출된 주민 해설자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설명하고 공유함으로써 작품 감상 장벽 완화 및 마을 단위의 작은 예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함
- 다음으로 지역 내 유휴공간의 활용 빈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주도형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을 제안함
 - 중장년층 이상의 연령대에서 수요가 높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운영하는 생활문화 클래스 운영을 확대하여 주민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장함
 - 각 마을마다 주민 중심 문화기획단 구성, 운영을 통해 마을에 필요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 등 문화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전시·공연뿐 아니라 소통 프로그램, 외부 협력 콘텐츠도 기획하여 자발적 문화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 지역 농산물, 수공예 자원, 역사적 장소 등과 연계한 콘텐츠를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기획하여 마을의 고유한 문화자산으로의 발전을 유도함

4. 관광자원과 연계한 거점형 문화예술 서비스 사업

- 서귀포시의 경우 동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곳을 거점으로 다양한 축제 및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음
 - 제주관광협회에 가입된 회원사 중 서귀포시에 입지해 있는 관광지(관광지업, 테마 관광지업) 입지 분석 결과,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시설 수(26개소)가 동 지역(15개소)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관광공사 VISIT JEJU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서귀포시에서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읍면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 수(26개)가 동 지역(19개)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관광시설들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행사들은 주요 타겟층이 관광객들에게 맞춰지면서, 실제 거주민들의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 현재 읍면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관광시설들은 민간에서 운영중인 시설로서 수익 창출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 바,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 또한 중심지 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생활문화 영역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에 비해 불특정 다수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행사나 축제의 경우 임계인구의 기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 운영에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관광지는 그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시설이 입지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최근 관광지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 Global Sustainable Tourism Council)는 대중참여 및 지역사회 의견, 지역사회 접근성 등을 지속가능 관광지 조성을 위한 성과지표로 제안하고 있음

- 또한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는 우리나라 관광개발 패러다임을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된 관광지들은 관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본 연구에서는 관광객원과 연계한 거점형 문화예술 서비스 사업의 추진을 제안함
 - 관광지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연계는 관광지 운영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역과의 상생,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가능성 증가 등 관광 운영자, 예술가 지역주민 모두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우선, 관광객과 주민을 분리한 시간대별 공간 운영 구조를 도입하여 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제고함
 - 주말 및 성수기 등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기존 방식대로 관광객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평일 저녁 시간대, 비수기 및 관광 비활성 시간대에는 주민 전용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공간의 유희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함
 - 구체적으로 정기적인 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운영되는 주민 인문학 강좌, 공예체험, 음악소모임, 영상제작 워크숍 등 생활문화 중심 콘텐츠로 설계하되, 각 관광지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과의 차별화를 시도함
 - 이를 통해 관광지 운영자의 공간 활용 수익 다변화, 주민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 확대, 예술가의 지속 활동 기반 확보라는 3자 상생 구조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다음으로 관광지와 마을이 공동으로 기획, 운영하는 지역기반 축제 및 생활문화행사를 통해 지역 고유 콘텐츠의 발굴 및 재생산을 유도함
 - 해녀 문화, 오름 생태, 전통시장, 지역 설화 등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문화행사를 관광지와 마을이 공동으로 기획, 운영함
 - 주민 동아리, 청소년 예술동아리, 마을공동체 활동가, 예술가 등이 함께 참여하고, 관광객 또한 관람객 또는 체험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관광 융합형 콘텐츠를 구성함

- 다만 본 사업의 핵심은 사업의 참여가 관광지 운영자나 지역주민, 예술가 등 주요 행위자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 바, 인센티브 체계 및 공공 지원 병행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도모함
 - 특히 본 사업에 활용되는 공간은 공영 관광지 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의 참여가 민간 사업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구조로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의 참여가 기업의 사회적 참여라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서귀포시,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축이 되어 지역문화 기여시설 또는 지속가능 관광지 인증 제도 등을 도입함
 - 또한 지역단위 문화행사 실적을 각종 행정지원 사업 선정 시 가산점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많은 관광지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함

5.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 제주도는 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주민등록인구 대비 예술인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서,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예술활동증명 현황 자료를 토대로 예술인 자원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서울을 제외하고 전체 인구 수 대비 예술인 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제주(0.44%)인 것으로 나타남
 - 즉, 제주도는 문화예술 여건 조성을 위한 인적 자본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신진 예술인 분석 결과, 20~30대 청년 예술인 비중이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등, 청년 예술인들의 신규 발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현황 분석 결과, 제주지역의 신진 예술인 중 20~30대 청년 비중은 49.8%로서, 전국 평균(68.8%)에 비해 19.0%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청년 예술인의 감소 현상의 이면에는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부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결국 지역단위 순수예술 지원 부족은 상대적으로 지원사업 의존도가 높은 청년 예술인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청년 예술가들은 다른 연령대의 예술가들에 비해 수입이 적은 편이며, 따라서 행정지원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4)에서 실시한 청년 예술인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예술인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술활동 수입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원은 급여(20.5%), 보조금 및 지원금(20.3%)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즉,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하거나 순수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및 지원금이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정책 부재는 청년 뿐만 아니라 일반 예술인들 또한 유사하게 경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예술인 대상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예술인들이 순수예술 지원 부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들은 서귀포시 내 문화예술 지원사업들이 지나치게 지역주민이나 관광객과 같은 소비자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창작자 중심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역이라는 키워드에 종속된, 소위 '노지문화'와 관련된 창작품만을 요구하면서, 예술인들이 제한된 테두리 내에서 창작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보유한 예술인들의 니즈가 반영된 정책의 추진이 시도될 필요가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서귀포시에 거주하거나 서귀포시 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제안함
 - 서귀포시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사업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의 예술인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임
- 정책의 범위 및 사업 대상에 대한 구체화를 위해 서귀포 예술인 DB 구축 및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 사업을 제안함

-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DB 구축을 통해 예술인들의 활동 분야, 경력, 작품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며, 기존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중인 '제주인물'과 연계하여 활용성을 극대화함
- 이 플랫폼은 예술인들이 자신의 작품과 활동을 소개하고, 다른 예술인들과 협업 기회를 모색하며, 관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특히 현재 예술가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경력이 풍부한 예술인들이 신진 예술인들을 멘토링하는 예술인 멘토링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함
 -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내 활동 경험이 적은 신진 예술인들은 창작 활동과 예술 경력 개발에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력 예술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마케팅, 지원사업 관련 행정업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예술인들이 자신의 작품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공간 이용 측면에서 예술인들의 원활한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작공간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함
 - 서귀포시 내 유휴 공간(폐교, 공공청사 등)의 활용을 통해 예술인 전용 창작 공간으로 조성하여, 예술작업 및 연습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함
 - 충분한 넓이나 구조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 공간 내 전시 및 공연 시설도 함께 구축하여 창작-발표-소통이 이루어지는 통합형 창작 생태계로 기능하도록 설계함
- 예술인의 창의성을 높이고 작업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실험형 소규모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함
 - 소규모 실험에 대한 창작비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을 통해 서귀포시의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 기반을 강화함
 - 중간단계 공유 및 결과 발표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장하고, 창작 - 공유 - 피드백이 가능한 구조로 사업을 설계함

6. 서귀포시 지역별 문화환경 지표 구축

- 읍면지역과 동 지역은 인구분포에 있어서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곧 민간 서비스의 격차로 이어짐
 - 수요-공급 이론에 의하면 민간에서의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에서 결정되며, 따라서 수요 기반이 취약한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밀집된 동 지역보다 민간 서비스의 공급 유인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행정은 생활 기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간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역 간 격차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음
 -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2015년부터 제주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하지만 정책의 추진은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며 이해관계자가 많아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책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근거 마련은 정책의 정당성이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음
 - 균형발전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특정 지역의 발전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가 필요함
 - 즉, 균형발전이란 이 지역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결국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 모두에 적용가능한 동일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임
- 실제로 최근 공공정책 영역에서는 자료 기반의 정책 수립과 추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측정도구(지표)의 개발과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 최근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실행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음(유종성 외, 2020)
 -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점으로 '인구

- 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지방소멸대응예산 배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제주 특별자치도는 '지역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균형발전사업을 발굴, 선정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화예술 정책 또한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문화환경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 추진 단위에 부합하는 측정 도구의 마련이 필요함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 위까지의 문화환경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보다 작은 행정단 위(읍·면·동·리 등)에서 문화예술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 화된 공간 단위에서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 서귀포시의 경우 기초단위 문화예술재단이나 중간지원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행정단위에서의 지표 개발과 활용은 정책 설계에서 충분히 고 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서귀포시 지역단위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서귀포시 내 각 지역의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본 연구에서는 정책 효 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의 측면에서 지역별 문화환경 지표 구축을 제안함
 - 지역별 문화환경 지표의 구축은 서귀포시 지역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바, 장기적인 측면에서 서귀포시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지표체계의 마련을 제안함
 - 다만, 현실성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신규 지표 개발에 한계가 발생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문화지표조사 항목에 행정체제에 맞는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지표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표를 토대로 정책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지표의 구축보다 중요한 것은 지 표의 관리라고 볼 수 있는 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칭)서귀포 문화예술센터가 운영될 경우, 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함
 - 지표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표 세부항목별 데이터 의 정기적 수집, 반영을 통해 현재 시점을 반영한 값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지표가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역량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바, (가칭)서귀포 문화예술센터의 운영을 통해 지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서귀포시 문화환경 지표(안)

1. 지표 수립 기준

- (행정단위 설정) 본 지표는 서귀포시 내 지역별 문화환경에 대한 상대적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활용되는 바,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지표를 설계하되, 읍면 지역의 경우 생활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리 단위 또는 권역단위 지표를 구축, 운영함
- (측정방식) 시설 수, 인구 수 등 행정자를 통해 취득이 가능한 정량적 자료의 경우 해당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로 설계하며,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항목의 경우 정기적인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표를 정량화함
- (산출주기) 서귀포 문화예술센터의 운영을 통해 지표 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이 가능한 경우 산출 주기를 1년으로 산정하되, 충분한 인적 역량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2년을 주기로 지표를 산출함
- (상대적 가중치) 각 평가항목은 항목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지표가 존재할 수 있는 바, 상대적 가중치 적용을 통해 보정을 실시함

2. 지표 체계(안)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인구 및 수요	인구	연령별 인구비중
		인구 수 및 인구밀도
		가구 수
	주민참여	프로그램 참여경험
문화예술 행사 개최 횟수		
주민만족도		
인프라 및 자원	문화시설	관련 공공시설 수
		관련 민간시설 수
		문화사업자 수
	예술인	지역 내 예술인 수
		시설 분야별 이동시간
접근성	대중교통 수준	
행정 및 재정	예산	1인당 문화지출
		문화예산 수준(읍면동)
	거버넌스	지역 내 협의체 존재 유무
		협의체 활동실적
		예술인 참여율

참고문헌

- 김정연(2013), 「농촌중심지 활성화의 방향과 정책과제」, 충남연구원 소도시연구회 워크숍 자료집.
- 김지수·오치옥(2024), 문화예술 여가활동이 청년층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8(4): 13-28.
- 김형건(2021),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22),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2),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22~2031)』.
- 박상우(2021), 「주민역량기반 내생적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실효력플러스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9(4): 293-314.
- 오윤경·차남준(2023), 『공공분야 데이터플랫폼 활용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이재호(2024), 「주민 주도형 농촌 유희시설 운영관리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태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관학회지』, 16(2): 54-6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9), 『걷고 싶은 건강도시 미추홀구 연구』.
- 장유미·이승준·이민아(2023), 정주여건으로서의 문화환경과 정주의도와의 관계,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8(4): 517-525.
- 제주문화예술재단(2024),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 제주문화예술재단(2023), 『예술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JFAC 예술지원체계 개선(안) 도출 연구』.
- 최영화(2020), 『승의평화창작공간 활성화 방안』, 인천연구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4), 『청년예술가 실태조사 및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Hong, A., Liu, C., Kim, J. Y., & Win. Z. (2024). Understanding travel behavior and accessibility for older adults: A travel satisfaction and equity perspective. University of Utah.

【부록】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재단 운영 현황 및 사례 분석

1. 광역자치단체 단위 문화재단 운영 현황

1-1. 인력 현황

- 광역 문화재단의 운영인력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직원 수를 보유한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소당 평균 운영 인력은 125명인 것으로 나타남
 - 광역 문화재단 중 가장 많은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기(503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서울(305명), 대구(218명) 순으로 인력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직원 1인당 주민등록인구 수는 세종, 제주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행정체제의 특성 상 기초단위 재단이 운영되지 못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여짐
 - 세종과 제주의 경우 단층제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위 문화재단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광역 재단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표 1〉 광역 문화재단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주민등록인구	운영인력			직원 1인당 인구 수
		정규직	계약직		
평균	3,018,465	124.9	93.2	31.7	25,023
서울문화재단	9,384,325	305	241	64	30,768
부산문화재단	3,290,964	75	38	37	43,880
대구문화예술진흥원	2,373,844	218	195	23	10,889
인천문화재단	3,000,454	98	56	42	30,617
광주문화재단	1,418,241	126	99	27	11,256
대전문화재단	1,441,562	79	57	22	18,248
울산문화관광재단	1,103,402	80	57	23	13,793

구분	주민등록인구	운영인력			직원 1인당 인구 수
			정규직	계약직	
세종시문화관광재단	386,944	99	84	15	3,909
경기문화재단	13,635,250	503	354	149	27,108
강원문화재단	1,526,243	56	49	7	27,254
충북문화재단	1,592,155	44	26	18	36,185
충남문화관광재단	2,130,509	60	46	14	35,508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1,752,921	79	61	18	22,189
전라남도문화재단	1,802,672	61	31	30	29,552
경북문화재단	2,551,370	102	86	16	25,013
경남문화예술진흥원	3,248,703	65	62	3	49,980
제주문화예술재단	674,353	73	42	31	9,238

주: 2024. 1. 1. 기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1-2. 예산 현황

- 광역 문화재단의 운영예산 분석 결과, 운영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남인 것으로 분석됨
 - 광역 문화 재단 중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서울문화재단의 예산 규모는 약 1,588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경우 서울 문화재단의 약 3.2%인 5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광역 문화재단의 예산 구성 비중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항목은 지자체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65.9%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국 광역문화재단 중 지자체 보조금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경기문화재단(89.0%)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기관은 충남 및 전남 문화재단인 것으로 분석됨
 - 충남 및 전남 문화재단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 없이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운영 예산을 국고 또는 자체자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경우 전국 평균 대비 지자체 보조금 및 국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체자금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2〉 광역 문화재단 운영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재단명	지자체 보조금	국고 (기금 등)	자체자금	기타	계
평균	347.0 (65.9)	103.5 (19.7)	44.7 (8.5)	31.2 (5.9)	526.4 (100.0)
서울문화재단	1,028.6 (64.8)	455.5 (28.7)	104.4 (6.6)	- (0.0)	1,588.5 (100.0)
부산문화재단	295.9 (51.0)	211.4 (36.4)	71.9 (12.4)	1.1 (0.2)	580.3 (100.0)
대구문화예술진흥원	942.8 (87.7)	14.2 (1.3)	22.0 (2.0)	95.6 (8.9)	1,074.6 (100.0)
인천문화재단	423.0 (87.8)	- (0.0)	- (0.0)	59.0 (12.2)	482.0 (100.0)
광주문화재단	227.0 (64.3)	104.0 (29.5)	22.0 (6.2)	- (0.0)	353.0 (100.0)
울산문화관광재단	207.0 (56.7)	73.0 (20.0)	- (0.0)	85.0 (23.3)	365.0 (100.0)
세종시문화관광재단	180.9 (79.6)	15.5 (6.8)	27.2 (12.0)	3.6 (1.6)	227.2 (100.0)
경기문화재단	1,353.0 (89.0)	- (0.0)	167.0 (11.0)	- (0.0)	1,520.0 (100.0)
강원문화재단	186.6 (55.9)	86.3 (25.9)	35.7 (10.7)	25.2 (7.5)	333.8 (100.0)
충북문화재단	132.3 (46.4)	83.8 (29.4)	8.1 (2.8)	60.8 (21.3)	285.0 (100.0)
충남문화관광재단	- (0.0)	110.0 (34.9)	118.0 (37.5)	87.0 (27.6)	315.0 (100.0)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136.0 (58.4)	1.0 (0.4)	61.0 (26.2)	35.0 (15.0)	233.0 (100.0)
전라남도문화재단	- (0.0)	269.0 (88.2)	8.0 (2.6)	28.0 (9.2)	305.0 (100.0)
경북문화재단	270.0 (54.9)	162.0 (32.9)	60.0 (12.2)	- (0.0)	492.0 (100.0)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4.2 (48.3)	17.8 (35.5)	- (0.0)	8.1 (16.2)	50.1 (100.0)
제주문화예술재단	144.9 (66.6)	52.2 (24.0)	10.6 (4.9)	10.0 (4.6)	217.7 (100.0)

주1: 2024. 1. 1. 기준

주2: 자료를 통해 예산현황 확인이 불가능한 대전문화재단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 기초자치단체 단위 문화재단 운영 현황

2-1. 기본정보 현황

-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기초단위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남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각각 22개의 기초단위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임
 - 반면 제주와 세종의 경우 단층제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기초단위 문화재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기초자치단체를 보유한 광역 지자체 중 문화재단 설립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인 것으로 분석됨
 -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중 기초자치단체 수 대비 가장 많은 문화재단을 보유한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88.0%의 설립률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설립률이 12.5%에 그치고 있음

〈표 3〉 광역시도별 기초문화재단 설립 현황

(단위 : 개, %)

구분	기초자치단체 수	기초단위 문화재단 수	설립률
합계	226	119	(52.7)
평균	13	7	(52.7)
서울특별시	25	22	(88.0)
부산광역시	16	2	(12.5)
대구광역시	9	7	(77.8)
인천광역시	10	5	(50.0)
광주광역시	5	1	(20.0)
대전광역시	5	1	(20.0)

구분	기초자치단체 수	기초단위 문화재단 수	설립률
울산광역시	5	2	(40.0)
세종특별자치시	0	0	(0.0)
경기도	31	22	(71.0)
강원특별자치도	18	15	(83.3)
충청북도	11	4	(36.4)
충청남도	15	7	(46.7)
전북특별자치도	14	6	(42.9)
전라남도	22	6	(27.3)
경상북도	22	10	(45.5)
경상남도	18	9	(50.0)
제주특별자치도	0	0	(0.0)

주: 2024. 1. 1. 기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광역시도별 기초문화재단 인력 현황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조직당 인력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당 평균 인력 수는 약 51명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서울특별시 내에 운영중인 기초단위 문화재단의 조직당 평균 인력 수는 약 113명으로 전국에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력 수가 가장 적은 대전(7명)의 18.8배 수준임

〈표 4〉 광역시도별 기초문화재단 인력운영 현황

(단위 : 명, %)

구분	조직당 평균인력		
		정규직	정규직 비율
평균	51	33	(66.1)
서울특별시	113	76	(67.3)
부산광역시	17	12	(70.6)

구분	조직당 평균인력		
		정규직	정규직 비율
대구광역시	82	44	(53.7)
인천광역시	63	49	(77.8)
광주광역시	20	20	(100.0)
대전광역시	7	3	(42.9)
울산광역시	36	19	(52.8)
경기도	101	82	(81.2)
강원특별자치도	28	16	(57.1)
충청북도	70	43	(61.4)
충청남도	35	23	(65.7)
전북특별자치도	28	19	(67.9)
전라남도	58	40	(69.0)
경상북도	33	15	(45.5)
경상남도	67	40	(59.7)

주1: 2024. 1. 1. 기준

주2: 총 인력 셀의 값은 해당 광역시도 내 운영중인 기초단위 문화재단 운영 인력의 평균값임

주3: 자료를 통해 인력현황 확인이 불가능한 재단의 경우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광역시도별 기초문화재단 예산 현황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조직당 예산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당 평균 예산액은 약 83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경기도 내에 운영중인 기초단위 문화재단의 조직당 평균 예산액은 약 220.8억원으로 전국에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산액이 가장 적은 대전(3.5억원)의 6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 문화재단과의 비교 분석 결과, 광역 문화재단에 비해 기초 문화재단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기초 문화재단의 평균 지자체 보조금 비중은 70.9%로서, 광역 문화재단의 평균 지자체 보조금 비중(65.9%)에 비해 5.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광역시도별 기초문화재단 운영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총 예산		
		지자체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비율
평균	83.0	58.8	(70.9)
서울특별시	102.7	75.3	(73.3)
부산광역시	26.3	20.1	(76.4)
대구광역시	105.8	64.2	(60.7)
인천광역시	103.5	58.9	(56.9)
광주광역시	19.1	19.1	(100.0)
대전광역시	3.5	3.5	(100.0)
울산광역시	88.0	87.9	(99.9)
경기도	220.8	190.1	(86.1)
강원특별자치도	79.0	58.1	(73.5)
충청북도	133.4	84.4	(63.3)
충청남도	57.7	31.7	(54.9)
전북특별자치도	45.7	27.1	(59.3)
전라남도	42.6	27.0	(63.4)
경상북도	99.2	59.3	(59.8)
경상남도	118.2	76.0	(64.3)

주1: 2024. 1. 1. 기준

주2: 총 인력 셀의 값은 해당 광역시도 내 운영중인 기초단위 문화재단 운영 예산의 평균값임

주3: 자료를 통해 예산 확인이 불가능한 재단의 경우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광역시도별로 기 운영중인 기초문화재단의 운영인력 현황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인구 약 8천명 당 1명의 직원을 운영중인 것으로 분석됨
 - 인구 대비 직원 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인구 4,333명당 직원 1명)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인천광역시(인구 38,638명당 직원 1명)인 것으로 분석됨
- 인구 천명 당 사업예산 분석 결과, 전국에서 운영중인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주민등록인구 1천명 당 약 6,100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 수 대비 기초문화재단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지자체는 강원특별자치도(인구 1인당 약 1억 3,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전광역시(인구 1인 당 약 2백만원)인 것으로 분석됨

〈표 6〉 광역시도별 주민등록인구 기준 기초문화재단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평균 인구 수	운영인력 1명 당 인구 수	인구 천명 당 사업예산
평균	297,847	8,074	0.61
서울특별시	365,943	5,110	0.30
부산광역시	287,348	22,669	0.12
대구광역시	301,453	4,369	0.77
인천광역시	433,025	38,638	0.31
광주광역시	107,152	5,358	0.18
대전광역시	169,583	24,226	0.02
울산광역시	262,843	8,169	0.37
경기도	528,393	5,649	0.54
강원특별자치도	93,357	4,039	1.32
충청북도	490,902	6,208	0.43
충청남도	237,035	18,268	0.47
전북특별자치도	189,518	6,306	0.50
전라남도	126,873	4,333	0.43
경상북도	154,222	4,365	0.85
경상남도	283,150	5,622	0.61

주1: 2024. 1. 1. 기준

주2: 평균 인구 수는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인구 수의 평균값으로서, 기초재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인력, 예산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지자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3.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운영 사례 분석

3-1. 개요

-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은 경기북부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경기북부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 전통문화의 보고 등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지만, 문화 인프라와 예술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음
 - 이에 경기문화재단은 2015년 북부사무소(북부문화사업단)를 의정부시에 개소하고, 경기북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의 조직 및 인력운영과 주요사업 고찰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 고유 문화콘텐츠 발굴의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례를 검토함

3-2. 배경

- 경기도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여건이 열악하지만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경기도 남부지역 인구는 천만명, 북부 인구는 3.5백만명(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기도 남부지역은 경기도 인구의 약 74%, 북부지역은 경기도 인구의 약 26%를 차지하여 대체적으로 남부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음
 - 경기도 북부지역은 군사 보호구역 등이 존재하여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으며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음
 - 서북부에는 고양시(킨텍스 K-culture 사업지)와 파주시(헤이리마을, 임진각 평화누리)가 위치하고, 중북부는 의정부시(예술의 전당, 경기문화콘텐츠진흥원), 양주시(양주목 르네상스 프로젝트, 장욱진 미술관, 조각공원 등), 연천군(전곡선사박물관,

수레울아트홀), 동북부는 포천시(K-디자인빌리지, 포천아트밸리), 가평군(자라섬재즈페스티벌), 남북부는 구리시(구리월드디자인시티, 구리아트홀), 남양주시(실학박물관, 이미지문화서원) 등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함
- 문화예술 여건 격차 완화를 위해 2005년부터 2007년 초까지 의정부에서 운영된 바 있으나, 남북부간 문화격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문을 닫은지 8년만인 2015년 다시 한번 북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기문화재단 북부사업소를 개소, 운영하게 되었음
- 북부문화사업소는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2015년 약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무실 공간 리모델링과 함께 경기북부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을 추진한 바 있음

3-3. 운영기간

- 운영기간 : 2015. 3. ~ 2019. 3.
- 2015년 최초 개소 이후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2019년 3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북부문화사업소 운영이 종료되고, 이후 관련 업무는 지역문화본부로 이관되었음
- 당시 구성된 지역문화본부는 현재까지 운영중이며, 지역문화본부 내 지역문화팀에서는 북부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문화재단 네트워크 및 지역문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기북부 지역문화 특성화 지원사업 기획 운영 등의 업무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음

3-4. 조직 및 인력

- 설립 초기인 2015년 정규직 3명, 계약직 7명 등 총 10명의 인원으로 운영되었으나, 2018년 정규직 5명, 계약직 3명 등 총 8명으로 인원이 감축되었음

- 조직개편 이전 시점인 2018년과 설립 초기인 2015년 인력구성을 비교 분석해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총 인원 수는 감소하였으나, 정규직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인력 감소의 경우 국비로 추진되던 인생나눔교실 사업이 2018년 사업내용에서 제외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표 7〉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인력별 주요 업무내용 변화

구분	2015	2018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총괄 • 종합 경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총괄 • 종합 경영계획 수립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협력사업 • 사업홍보 및 보도자료 관리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 활성화 발굴 지원 • 전통문화 창작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 공연 공모지원 • 전통문화유산 주제별 기획, 발굴 • 전통문화자원 관광 상품화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 예술단체 공모 지원 • 일반행정 및 사무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 문화예술단체 공모 지원 • 작은미술관 운영 • 계약업무 • 감사 및 보고자료 취합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나눔교실 멘토링 사업 • 인생나눔교실 홍보업무 및 튜터 지원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 전통문화 자원 관광 상품화 사업 • 작은미술관 업무지원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나눔교실 회계 지출 • 인생나눔교실 정산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미술관 기획 운영 • 인생나눔교실 기획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미술관 운영 업무지원 • 일반행정 업무지원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 경기북부 문화예술 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구축 • 사업 모니터링, 평가관리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 청년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운영
J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운영 • 청년 문화 창업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업무지원 • 청년 문화 창업 지원 업무지원
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전선 DMZ 프로젝트 • 경기북부 마을재생 사업 • 청년 문화 창업 지원 프로그램 • 일반행정
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업무지원 • 모니터링 및 평가관리 업무지원 • 일반행정 업무지원

3-5. 운영예산

-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은 2015년 최초 설치될 때부터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었음
 - 즉, 사업단 조직은 정해진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이나 공기관대행 형태의 조직이 아니라 출연금 형태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가짐과 동시에 충분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의 예산은 최초 설치될 때부터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였음
 - 도 출연금 감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은미술관 지원비 감소로 인하여 2015년 예산 대비 2016년 예산이 감소하였음
 - 인생나눔교실 사업 제외로 인하여 2018년 예산 대비 2017년 예산이 감소하였음

〈표 8〉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운영예산 변화

구분	출연금	국비보조	기타	총계
2015년	19.5억	4.2억	-	23.7억
2016년	14.7억	3.7억	0.3억	18.7억
2017년	11.5억	4억	1억	16.5억
2018년	13.5억	-	-	13.5억

3-6. 주요사업

3-6-1 경기북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 경기북부 예술단체 공모지원

-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인들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발굴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됨
 - 공모지원 사업설명회와 공모심사 및 인터뷰심사 개최를 통해 예술(인)단체 공모사업, 시/군 협력 공모사업, 북부문화예술활성화 기획발굴사업을 진행하였음
 - 본 사업의 경우 2015년 0.4억에서 2018년 3.5억으로 지원액이 크게 증가한 바 있음

□ 청소년문화예술활동 지원

- 미래 문화예술 인적자원 발굴,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창작역량 강화 및 신규 예술프로그램 기획발굴 등 창조적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하고 있음
 - 동아리 활동지원, 지역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지원, 아시아지역 네트워크 워크숍, 청년문화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음

□ 경기북부 네트워크 구축

- 문화예술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인식 공유 및 관계자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운용
 - 현안에 대한 소통과 공유가 원활하기 위해 정기적 워크숍, 관계자 간담회 등 개최 (계속사업)
 - NS, 블로그, 뉴스레터 업데이트 및 발송 등 실시(계속사업)
 - 홈페이지 및 인쇄물(리플렛)발간(계속사업)
 - 문화예술 네트워크 DB확보, 경기청년 문화캠프(2017년도 사업)

□ 시/군 협력사업

-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시/군 협력사업을 수행하였음
 -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
 - 경기북부 10개 시/군 거점의 문화예술 단체 매칭지원사업

□ 문화예술정책

- 2015~2016년 역점업무 중 하나의 전략과제로 경기북부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예술프로그램 실태조사, 전통연희 발굴조사가 이루어짐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중점 과제 개발 연구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적 특성과 효율성, 형평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예술사업 운영의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정책연구를 실시함

3-6-2 경기북부문화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사업

□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운영

- 경기북부지역 문화기획자 보급 및 미래인재 육성을 지원하며 새로운 문화성장동력 양성을 통해 문화기획 프로젝트 실행지원과 함께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함
- 현장 워크숍 진행, 맞춤형 멘토링 및 멘토 워크숍, 청년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청년 문화기획자 현장 워크숍, 문화기획 프로젝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을 포함

□ 청년 문화창업 지원프로그램

- 청년 문화창업 공간 조성과 활동지원을 통해 창업 안정화를 도모하고 문화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 창업공간조성, 활동, 컨설팅 및 워크숍, 현장모니터링, 청년문화창업 지원, 성장지원 프로그램, 소규모 문화예술 프로젝트 등을 포함

- 지지역문화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근거함
- 2015년 경기북부 문화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명에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됨

3-6-3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 전통문화공연 공모지원

-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전통문화 전승단체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하여 소규모 향유 대상 전통문화 큰 잔치 공연 지원
 - 백만원의 기적: 전통문화잔치, 전통연희 창작활동 지원 등을 포함
 - 2015년 전통연희잔치와 전통연희 창작활동지원이 전통문화공연 공모지원사업으로 흡수되었음

□ 전통문화공연 공모지원

- 전통문화유산 발굴, 조사, 기록 보존을 일반에 보급하여 다양한 활용을 위한 원천 정보를 제공하여 전통문화유산을 매개로 통합하고자 함
 - 학술세미나 개최, 통합학술발표, 특강 및 워크숍, 현장지원, 책자발간 등을 수행함
 - 2017~2018년 사업이 진행되었음

□ 전통문화자원 관광상품화

- 경기북부 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지에서 향유할 수 있는 전통문화를 소재한 문화상품을 개발
 - 2017년 진행한 창작연극 개발은 연천군과 협업을 추진하여 지역극단을 육성하고 마을공연, 시범공연 등을 하였으며, 상설공연 지원은 양주군과 협업을 추진하여 2016년 개발한 사업단에서 개발한 임찍정은 살아있다는 공연하였음
 - 2018년은 신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2-6-3 경기북부 지역특화 재생사업

□ 경기북부 마을재생 사업

- 2018년 신규사업으로 경기북부 산업 및 골목쇠퇴지형 마을 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접경지역형 마을재생을 통해 지역가치 재생, 공동체 회복 및 지역활성화 도모
- 1억원 예산으로 포천 관인면 대상 지역조사, 주민역량강화 등의 전략수립 및 기반 조사와 마을재생 사업 및 모니터링 진행, 결과 공유회 진행 등 진행

□ 서부전선 DMZ프로젝트

- DMZ 접경지역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정체성 확립과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였으며, 마을 아카이빙, 실향민 생애사 기록 등을 통해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함
 - 본 사업은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음
 - 서부전선 DMZ기초조사(FGI), 마을 아카이브 프로젝트, 문화예술인 통일문화교육, 실향민 구술사 기록 및 공유밥상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음

3-6-4 위탁사업

□ 인생나눔교실

- 경기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인생나눔교실 운영사업을 운영함
 - 참여형 예술 앵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생나눔교실 멘토링을 제공하며 문화예술 콘텐츠를 구성함
 - 국고보조 위탁사업으로 지원액이 감소되는 추세임

□ 작은미술관 운영

- 문화 콘텐츠 제공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술가와 지역민의 소통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기여하고 있음
 - 참여형 예술 앵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를 구성하고자 함
 - 기획 전시회, 교육 프로그램, 전시연계 프로그램 운영
 - 국고보조 위탁사업으로 지원액이 감소되는 추세임

2-7. 시사점

-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DMZ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별도의 조직이 운영되고 있음
-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단체지원, 예술인 지원, 청년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 자원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북부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 문화소외 해소, 문화향유의 공공성 확대, 지역문화 특성화 및 브랜드화, 문화예술 창작 및 유통 지원, 문화예술교육 및 청년 지원, 지역문화재생 및 커뮤니티 강화 등의 긍정적인 산출물을 생산하였음
-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창작-유통-교육-재생-공공성 확대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했다는 특징이 있음
-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지역소멸, 고령화, 환경 등)에도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단순히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있음
- 공모지원, 캠페인, 교육,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문화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음
-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은 경기북부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과 주민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의 성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즉, 의정부를 비롯한 북부지역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됨으로써 북부지역의 문화여건 개선을 위해 기여했음

Abstract

Efficiency Plan of Culture and Arts Policy in Seogwipo City

Kwon-oh Kang, Min-ji Lee, Kyung-soo Hwang, Hwa-ja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eogwipo City's culture and arts policy polic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lture and arts policy environment in Seogwipo City. To this e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faced by Seogwipo City, and based on this, structurally analyzed the conditions of Seogwipo City to derive an efficiency strateg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Seogwipo City has sufficiently excellent resources in terms of culture and arts. However, there were various problems in terms of efficient use of resources, and these results eventually show that there is sufficient possibility for efficiency through policy changes. In particular,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needs of residents and artists is expected to improve many of the inefficiencies currently experienced.

Keyword : Seogwipo city, Culture and art policy, Efficiency plan, Local policy

현안연구 2025-01

서귀포시 문화예술 환경 분석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

발행인 문순덕 · 김석윤

발행일 2025년 7월 15일

발행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www.jewfri.kr)

제주문화예술재단 (www.jfac.kr)

인쇄처 태한인쇄사

ISBN 979-11-93547-54-0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